



× ...

Season 6

AI MEDIA SHIFT: AI가 바꾸는 미디어, 유럽에서 답을 찾다





AJ Media Rookies
Season 6 공식 영상

- (주)AJ네트웍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AJ Media Rookies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수는 미디어 산업에 AI가 미치는 역동적 변화 현장에서 직접 느끼며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벨기에, 독일로 떠났습니다. 전통 언론 기업인 AFP와 르몽드와 더불어 미디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유네스코, 국경없는 기자회 등을 방문하며 AI 시대의 미디어 분야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도 교수 | 민영, 박아란

미디어 루키즈 | 강정인, 박선영, 김서연, 안서연, 둘게르 휴렘, 정성준, 전수현, 왕준영, 주가윤, 김다연

조교 | 강민혁, 지여원

발간일 | 2026년 9월

편집디자인 |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2)333-7136

C O N T E N T S

[서론]미디어 루키즈의 시작점

- 02 유럽의 여름을 걷다: 날씨 요정 루키스들의 담대한 AI 탐방 | 민영 교수
- 03 걷고 땀 흘리고 질문하다: 미디어 루키들과 함께 한 여름, 유럽의 기억 | 박아란 교수
- 04 AJ 미디어 루키스 유럽 탐방을 마치며 | 강민혁
- 05 다시 또 루키스 | 지여원
- 06 AJ 루키즈 시작

[본론] 유럽 미디어 산업 현장 속으로

- 07 **인터랙티브맵** Interactive Map으로 보는 루키즈 여정
- 08 AJ Media Rookies Season 6 유럽 곳곳에 남긴 루키스의 발자취
- June 30
- 10 **UNESCO** 세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곳, 파리 유네스코 본부 | 강정인
- 14 **L'Oréal** 한국 너머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까지 | 강정인
- 18 **BeReal** 즉흥적으로 온 파리, 2년 뒤 그는 Bereal 엔지니어로! | 박선영

July 1

- 21 **EC** EU Governance and Digital Policy | 둘게르 휴렘

July 2

- 24 **Le Monde** 신뢰가 수익이 되는 언론, Le Monde | 김다연
- 28 **AFP** FACTS MATTER | 전수현
- 34 **번외** 유럽 여행을 간다면? 이것만큼은 챙겨 가보자!

July 3

- 36 **RSF**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 김서연
- 40 **Station F** 모두의 경험으로 헤쳐 나가는 창업 생태계 | 주가윤

July 6

- 44 **튀빙겐대학교 미디어 세미나** 서로의 사회를 비추어 본 시간 | 정성준

July 7

- 48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워크샵** 1년의 기록을 들은 시간 | 안서연
- 52 **CZS Institute (AI Law Center)** 기술과 법이 만나는 곳 | 왕준영

July 8

- 56 **벤츠 박물관** 우리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 전수현, 주가윤
- 60 **번외** Photo Essay: Rookies' European Log

심화 주제: 더 깊이

- 65 1) 대체됨과 뒤처짐의 굴레: AI Act로 보는 AI 시대의 생존 조건 | 주가윤
- 67 2) 성장을 멈춰도 괜찮은 사회: 성장을 둘러싼 해외 기업과 한국의 업무 환경 차이 | 박선영
- 68 3) AI 시대의 팩트 체크: 득인가, 실인가? | 김서연

[결론] 우리의 다음 페이지

- 70 Interview) Rookies Off the Record
- 72 Special Thanks to

유럽의 여름을 걷다: 날씨 요정 루키스들의 담대한 AI 탐방



민영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AI 미디어 루키스 시즌 6은 세 번째 유럽 프로그램이자 첫 프랑스-독일 탐방이다. 6월 내내 한국 언론을 통해 프랑스 폭염 소식을 접했던 터라 날씨 걱정이 컸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더위는 이미 한 풀 꺾인 뒤였다. 어느 정도 쾌적한 여름 날씨 속에서 10박 12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팀 열네 명의 날씨 요정 덕분이다. (그룹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럽 폭염 보도가 쏟아졌는지, 날씨를 염려하는 카톡 안부 인사는 탐방 내내 계속됐다.)

인공지능은 이제 기술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힘이며, 우리는 그 역사적 전환을 동시대에서 통과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부터 경제, 정치,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사회적 층위에서 AI가 몰고 올 변화를 가늠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이 변화는 어떤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현장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던지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물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AI와 미디어'를 이번 탐방의 주제로 삼은 이유다. 특히 미국 기반의 소수 빅테크 기업이 AI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며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프랑스와 독일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탐방지였다. AI 규제에 상징인 브뤼셀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찾아 AI Act의 취지와 쟁점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탐방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여정에서는 각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르몽드(Le Monde)의 CEO 루이 드레퓔스(Louis Dreyfus)를 비롯해, <국경없는기자회> 이사회 의장 피에르 아스키(Pierre Haski), AFP(Agence France-Presse)의 글로벌 미디어 총괄까지, 최고 경영진부터 실무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언론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 AI가 그 위기를 가중하는 시점에, 르몽드의 이중 전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픈AI와 콘텐츠 협약을 맺고 영문판 번역에 AI를 활용하면서도, 오히려 기사를 더 많이 채용해 인간이 생성하는 콘텐츠의 품질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경영과 편집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이용자의 경험과 만족을 최우선에 두는 지점에서는 두 축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AI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지우는 시대, 거짓을 사실로 믿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실마저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인포칼립스(intofcalypse)' 속에서, <국경없는기자회>와 AFP 통신은 사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저널리즘의 분투를 보여 주었다.

세계적 도시 파리를 떠나 찾은 독일의 튀빙겐은 아름다운 대학도시다. 튀빙겐대학 귀도 추어스티게(Guido Zurstiege) 교수의 표현처럼 '한적한 평화(remote peace)'를 품은 곳이다. 헤겔과 셸링이 수학한 튀빙겐 신학교 옆 고풍스러운 중세의 성에서 튀빙겐대학 미디어학과와 공동 개최한 워크숍은 귀한 경험이었다. 한류 현상과 정치 양극화에 대한 루키스들의 발표는 진지하고 시의적절이었으며, 두 사회가 함께 안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AI Law Center에서는 EU AI Act의 내용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법과 규제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들까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여행은 관계의 기술을 버리는 밀도 높은 경험이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다. 낯선 시공간, 짙은 일정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옆 사람을 다독이며 한 팀으로 성장한 열 명의 루키스들에게 무한한 칭찬과 응원을 보낸다. 탐방 기간 내내 긍정의 에너지로 우리 팀을 이끌어주신 파트너 박아란 교수님, 그리고 조교 리더십의 정수를 발휘한 강민혁, 지여원 선생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 AI 미디어 루키스라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주신 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님의 후의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시즌 6의 경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전달하여, 미디어 루키스의 독보적 전설을 이어갈 것이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어느새 비가 개었다. 날씨 요정의 귀환이다.

걷고 땀 흘리고 질문하다: 미디어 루키들과 함께 한 여름, 유럽의 기억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부교수

2026년 미디어 루키스의 여정은 프랑스의 전통적 언론사부터 브뤼셀의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독일 대학과 연구기관까지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올해 미디어 루키스의 주제가 'AI and the Future of Media'인 만큼, AI가 변화시키고 있는 미디어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언론사 등 특정 기업만을 방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저널리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르몽드와 AFP에서, AI와 플랫폼을 둘러싼 정책과 규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언론 자유의 문제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미디어 리터러시, Station F와 BeReal을 통해 스타트업과 기술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튀빙겐대학교에서는 독일의 교육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의 미래'를 여러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가운데 하나는 르몽드였다. 르몽드 본사에서 루이 드레퓔스 CEO를 직접 만나 디지털 전환 과정과 구독 모델, AI 시대 뉴스룸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널리즘 연구자로서 배울 점이 많았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가 경영 위기 속에서 비용을 줄이고 기사를 감축하는 동안 르몽드는 오히려 뉴스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기자 수를 2010년 약 300명에서 현재 600여 명으로 늘렸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르몽드의 AI 관련 논의가 실제 뉴스룸의 업무와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방문은 올해 1월 방문 신청 웹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신청해둔 일정이었다. 2년 전 출장 때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방문한 경험이 너무나 유익하고 인상적이어서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곳에서 EU의 역할과 AI 관련 법·정책에 대한 강연도 듣고, 학생들도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야기하던 제도가 현실에서는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유럽의 폭염으로 열차 지연과 취소 때문에 유럽연합의 심장부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느끼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아쉬웠다.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는 열차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포함한 세 명이 열차를 타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열차를 눈앞에서 놓친 뒤 대체 열차를 타기 위해 뛰던 순간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즐거운 추억이 되었고 덕분에 종아리 근육도 조금 더 얻은 것 같다.

파리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일정에 늦지 않기 위해 단체로 달리던 시간도 사실 다 즐거웠다. 내가 언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볼 수 있을까 싶었고, 학생들과 웃고 떠들면서 잠시나마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 평소에는 좀처럼 내 사진을 찍지 않지만 이번에는 학생들 덕분에 인생 사진도 찍고, 옆 자리에서 학생들의 수다를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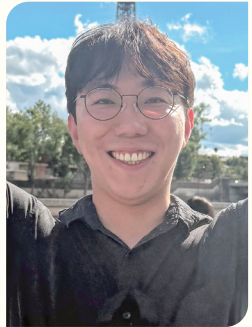
독일로 이동한 뒤 튀빙겐대학교에서는 미디어 루키들의 또래 학생들과 독일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튀빙겐대 미디어학과 학생들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K-Contents의 글로벌화', '사회 양극화와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직접 영어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모습은 아주 자랑스러웠다.

열흘 동안 계속되는 이동과 기관 방문에 지칠 법도 했지만, 학생들이 방문 기관마다 준비해간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들으며 각자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멋있게 보였다. 학생들이 기관을 단순히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발표하고 질문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험이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번 유럽의 10박 12일 여정이 참가 학생들의 진로나 생각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에서 만난 분의 말 한마디, 브뤼셀에서 던졌던 질문 하나, 튀빙겐에서 나눈 대화 하나가 몇 년 뒤 진로를 고민할 때 문득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유럽에서 함께했던 루키들과의 여정이 생각날지도 모른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떠났던 첫 유럽 배낭여행에서 느꼈던 감정과 가슴 뛰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아련하게, 때로는 순수했던 열정의 시간으로 그리움 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루키들에게도 이번 여정이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AJ 미디어 루키스 유럽 탐방을 마치며



강민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석사과정 졸업을 앞둔 시점에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의 조교로 유럽 탐방에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경험이 없었던 만큼, 낯선 환경에서 조교로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출발 전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교수님의 세심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긴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학을 공부하는 석사과정생으로서 유럽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대상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와 AI 관련 정책을 공부하며 유럽의 제도와 규제 방식에 대해 꾸준히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헌과 강의를 통해 제도를 이해하는 것과,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규제가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가능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대학과 기관,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현지의 일상과 문화를 접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는 단순히 법률 조항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와 가치,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한류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현지 경비원께서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주셨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리의 한 디저트 가게에서는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한국의 언어와 콘텐츠를 반갑게 마주할 때마다,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와 문화의 국제적 확산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교로서 학생들의 일정을 지원하고 발표와 활동을 돕는 역할을 맡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긴 일정을 밝은 모습으로 함께해준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의 마지막 시기에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주신 문덕영 부회장님과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일정 동안 꾸준한 격려와 도움을 보내주신 두 교수님과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애써주신 조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지도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경험은 석사과정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결실인 동시에, 앞으로 시작하게 될 박사과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잊지 않고, 미디어와 사회를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루키스



지여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학부 시절, AJ 미디어 루키스에 참여학생으로 뉴욕을 간 이후 첫 출국이 다시 미디어 루키스 때 문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의 탐방은 큰 영감과 동기를 주었고, 무엇보다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간-기계 소통이라는 관심 분야에 처음 눈뜨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만에 해외 여정이 다시 또 루키스였고, 이번에는 조교의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번 루키스의 주제가 'AI and the Future of Media'였던 만큼, 그 사이에 미디어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 올 수 있을지 내내 궁금하고 설렘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파리 유네스코와 르몽드, AFP, 국경없는기자회, 스테이션F와 AI Law Center 등 미디어와 AI에 대하여 최전선에 서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기관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날 파리 유네스코에서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디어 리더십 담당자 Alton Grizzle님께서는 바쁜시 와중에도 직접 미팅을 주선해, 프로그램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미디어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말은 늘 추상적으로만 다가왔는데, 그것을 직접 실현하려 노력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은 르몽드에서도 이어졌는데, CEO이신 루이 드레퓔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대중들이 AI가 요약해 주는 뉴스를 소비하고, 기존 언론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금, 르몽드가 굳건한 선두 주자로 남기 위한 전략과 인사이트에 대하여 공유해 주셨습니다. 2년 전 루키스에서 The New York Times를 방문했을 때 그 해답이 '뉴스를 넘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소스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르몽드가 택한 길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깝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히 업계의 전문가들이 나눠 주

신 인사이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서 유일하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식당 그리고 BTS 굿즈를 사기 위해서 건물을 둘러 줄 서있는 유럽 사람들을 보며 2년 전 미국에서 보다도 더 큰 열기를 실감했습니다. 튀빙겐 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이 한국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쓴 일지를 함께 읽으며, 그들이 갖는 타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 통틀어 이번 여정에서 가장 오래 남을 장면은 튀빙겐 대학교에서 루키스 학생들이 발표하던 순간입니다. 다들 전날 늦은 밤까지 준비하며 잔뜩 긴장한듯 보였는데, 막상 교실 앞에서 발표를 하자 여유롭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멋있었습니다. 튀빙겐 대학교 대학원생들 앞에서 하는 발표라 더 떨렸을 텐데, 좋은 발표를 위해 애쓴 마음이 고스란히 보여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기관에서 만난 전문가들과의 시간도 더없이 빛나고 소중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했던 것은 루키스 팀 그 자체였습니다. 지적이고 섬세한 정영이, 유럽이 퍼스널 컬러인 다연이, 무슨 말을 하든 늘 진심으로 웃어주는 김서연이, 러닝메이트이자 대화장인 선영이, 적극적이면서도 물결처럼 차분한 안서연이, 볼 때마다 웃음 나오는 조합 준영이, 가운이와 수현이, 열정적이고 어디서든 진심으로 소통하는 성준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언어 천재 효리까지 모두 다 너무 고생했고 소중한 루키스의 추억을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정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민혁 조교님, 항상 섬세하게 챙겨 주시고 학생들의 컨디션을 신경 써주신 민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의 여전사이자 힘든 일정 속의 가장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신 박아란 교수님 덕분에 모두에게 안전하고 특별한 루키스 탐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값진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 주신 AJ네트웍스 문덕영 부회장님과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학부생으로 받은 영감을 이번에는 조교의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며, 루키스에서 또 한 단계 성장해서 돌아왔습니다.

AJ 루키즈 시작

저마다 무언가를 동경합니다. 동경은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2026년 AJ 루키즈로 선정된 우리 10명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루키즈는 민영 교수님, 박아란 교수님과 함께 AI가 미디어 산업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올해는 특히 EU AI ACT, Digital Service Act 등 AI 규제에 선두인 유럽 행정기관의 관점을 조명합니다.

10명의 루키즈에게 이번 여정은 도전입니다. 누군가는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합니다. 무너져 가는 언론 환경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프랑스의 언론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도 해내기 위해 도전합니다.

루키즈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영어가 두려워 영어 강의로 듣지 않던 루키즈가 독일 대학원생과 한국과 독일의 정치 환경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해외 기관에서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겁먹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유럽은 AI와 어떻게 공생하는지, 그들은 AI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루키즈의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전수현
미디어 21



정성준
영어교육 21



박선영
미디어 22



왕준영
미디어 22



김다연
미디어 23



김서연
미디어 23



주가운
미디어 23



안서연
미디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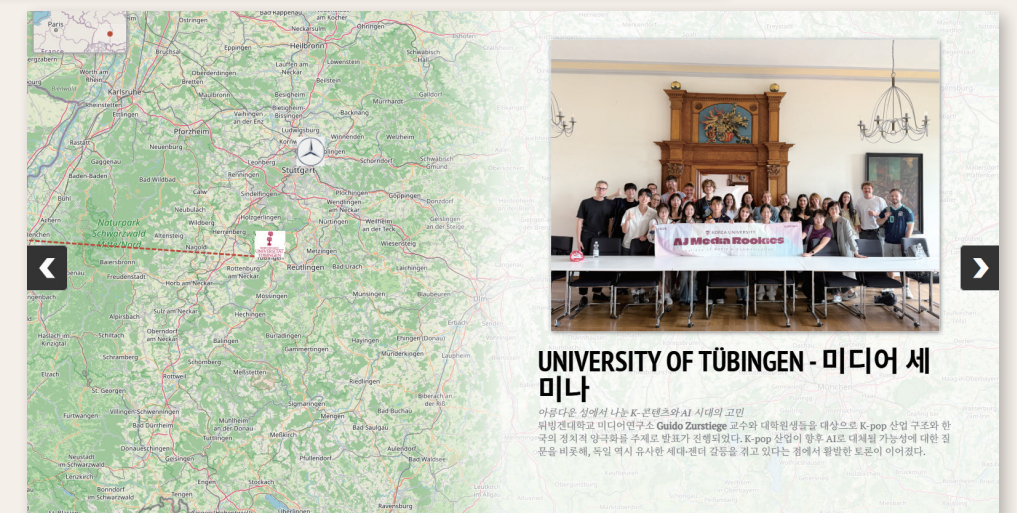
강정인
미디어 25



둘게르 휴렘
미디어 25

[인터랙티브맵] Interactive Map으로 보는 루키즈 여정

미디어루키즈맵



AJ Media Rookies Season 6

유럽 곳곳에 남긴 루키스의 발자취



5

세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곳, 파리 유네스코 본부

강정인(미디어 25학번)



June 30, UNESCO (Paris)



탐방을 떠나기 전, 유네스코를 떠올렸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대부분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담당자님과 대화를 나누고 온 지금, 이 기관이 다루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라는 이름답게, 교육 · 과학 · 문화뿐 아니라, 미디어 전공자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판단할 권리까지 그들의 영역에 포함돼 있었다.

유네스코는 회원국과 시민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강제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 존재 이유가 부각된다고 느꼈다. 국제사회가 함께 지향할 기준을 만들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 가치가 구현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간이 말하는 유네스코의 가치

현재의 본부 건물이 세워지기 전, 유네스코는 파리의 호텔 마제스탁을 임시 본부로 사용했다. 이후 에콜 밀리테르와 에펠탑, 사이오궁으로 이어지는 파리의 도시 경관을 고려해 현재 위치에 층고가 낮은 Y자형 건물을 세웠다. 본부 안에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세계 각국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고, 조형물과 정원, 건축 소재에도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연약하지만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신념을 보여주는 자코메티의 'Walking Man I', 히로시마 원폭 당시의 화강암을 제염 처리해 인간의 파괴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안도 다다오의 '명상의 공간', 물에 비쳤을 때 비로소 '평화'라는 글자가 보이는 이사무 노구치의 '평화의 분수'까지, 그 어느 것도 우연히 배치된 것은 없었다. 이 작품들은 유네스코의 가치를 직접 설명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방문자가 평화와 인간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예술의 특성은 강압보다는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유네스코의 정신과 잘 어우러졌다.

총회장에 담긴 평등의 원칙

유네스코 총회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 회원국 대표들이 앉아있을 수많은 의자와, 정면에서 노란 조명을 받은 유네스코 로고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총회에서 회원국은 프랑스어 국명에 따른 알파벳순으로 앉지만, 매 회기 추첨을 통해 첫 자리를 정한 뒤 해당 국가부터 순서대로 배치한다. 투표 때 국가를 호명하는 순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의장 역시 회기마다 새롭게 선출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적용하는 유네스코의 원칙이다. 좌석 배치만으로 실제 국제사회의 평등을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회의장에는 어느 한 국가도 첫 자리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유네스코의 권위는 누군가를 단독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같은 공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자리를 설계하는 데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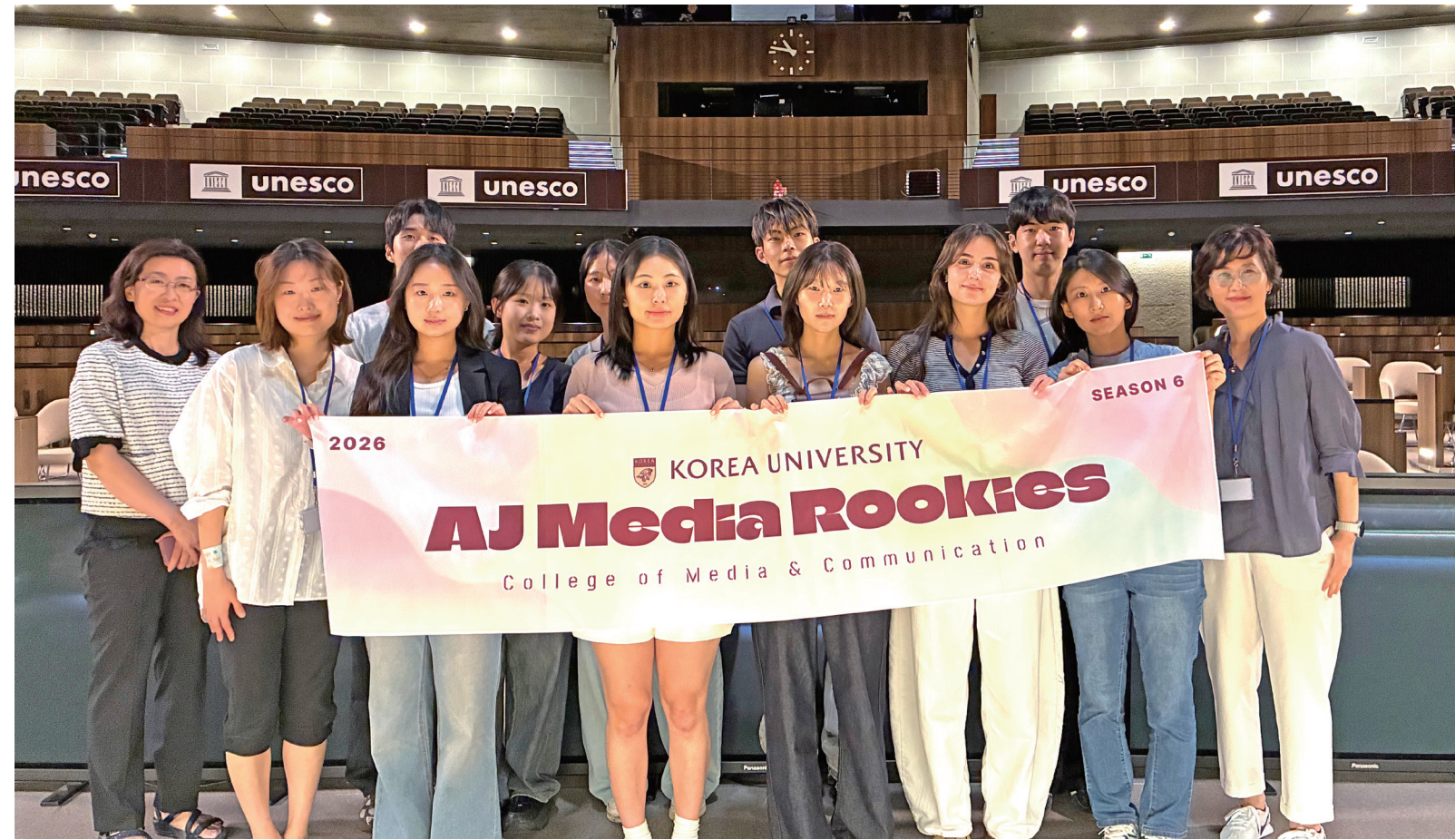
전세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하여

본부 투어 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담당자인 Alton Grizzle님과 인턴 Emily님을 만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MIL Alliance(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lliance)다. MIL

은 오늘날의 정보 환경에서 콘텐츠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MIL Alliance는 이를 강화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로, 사회 전반의 MIL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사이트의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페이지에서는 관련 영상과 책자, Global MIL Week 등의 흥미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이러진 질의응답에서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알고리즘 편향,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적용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 중 AI 시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묻는 질문에 Alton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장 먼저 꼽으셨다. 딥페이크는 그 필요성을 깊이 통감하는 사례이다. AI로 제작한 영상물은 알아채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최근 AI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영상을 보았던 경험 이후 그것이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질수록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판단은 더 복잡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은 'MIL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이었다. Alton님은 평소 자신의 사고에 잘못된 점이나 편향은 없는지 끊임없이 되짚으며 판단하신다고 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만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믿고 싶어 하는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 안에만 갇히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정에도 편향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설계와 개인의 실천 사이

Alton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내용이었던 것은 아니다. 미디어를 전공하며 비판적 사고와 확증편향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배웠다. 그러나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이 유네스코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자 글자로만 보던 내용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동시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정보 환경은 기관과 시민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다. 모든 책임을 개별 이용자의 의지와 능력에만 맡길 수는 없다. 사람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가 다르고, 국가별 디지털, 교육 환경과 플랫폼의 정보 배열 방식 역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은 세계 시민들이 보다 동등하게 균형잡힌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 역시 한순간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편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심한 제도와 정책들이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연결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다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네스코, 공통된 원칙과 협력의 장을 만드는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통해 앞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정책과 시스템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사회는 무엇을 더 설계해야 할지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

한국 너머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까지: L'Oréal 유일연 CFO와의 만남

강정인(미디어 25학번)

June 30, L'Oréal (Paris)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 로레알. 지구 반대편의 글로벌 기업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하고 있는 유일연 교우님을 만나 로레알 입사 계기부터 해외 근무를 하며 느낀 점, 오랜 시간 커리어를 쌓으며 지녀오신 태도 등에 대해 들었다. 특히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의 마음가짐과, 자신의 약점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루키즈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남겼다.

인턴으로 시작한 로레알 코리아에서 파리 본사 CFO가 되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덕에 다양한 사업 현장을 접한 유일연 CFO는 자연스럽게 사업과 경영 전반에 관심을 가져왔다. 전공인 생명유전공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대학 시절 지인을 따라 등록한 회계 학원에서 숫자를 다루는 일에도 흥미를 느끼셨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로 입사한 로레알 코리아 인턴직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



가 CFO, 파리 본사 내부 감사 등을 거쳐 현재까지 로레알 본사 총괄 CFO로 일하며 재무 분야의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는 입사할 당시만 해도 로레알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조차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이곳에 들어오게 된 과정은 사전에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한 결과라기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까웠다.

더 큰 세계로 향한 선택, 언어를 넘어 문화에 스며든다는 것

유일연 CFO가 해외 진출을 희망했던 이유는 정형화된 한국 조직 문화에 대한 불편함과 더 큰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동기 때문이었다. 업무 규격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현지 본사 근무의 장점으로 꼽았지만, 동시에 해외에서 일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동경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과 업무를 버티기 어려우므로, 가장 먼저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일하려면 현지인들보다 두 배는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동화란 단순히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넘어 현지의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다. 유일연 CFO는 이를 "와인을 마신 뒤 프랑스인보다 프랑스인처럼 그 맛을 묘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상대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조언은 국경뿐 아니라 세대와 젠더 등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먼저 경험해 보기

흔히들 글로벌 커리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유일연 CFO는 “다음에 이어 나갈 커리어에 대해 무리하게 계획하고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로레알 코리아에 입사하며 언젠가 이곳의 CFO가 되겠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이후 목표까지 도달하는 모든 단계를 미리 계획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연 CFO는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며 망설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결국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기보다 우선 시도하고, 그 경험을 통해 판단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었다.

약점을 지우기 보다는 강점을 키우기

유일연 CFO는 “단점을 완전히 고치기보다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발굴해 키우고, 단점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아예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점을 지우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한 뒤 그를 강화시키는 편이 더 나은 접근이라는 의미였다. 유일연 CFO는 자신의 단점으로 꿈꿀 수 없는 성향을 꼽으며, 이를 없애려 집착하기보단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팀원으로 선택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셨다.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었다. 기업에서 팀원들과 제대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역시 얼핏 보면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일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었다. 리더가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조차 모른다면 그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역할과 요구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래 일해도 여전히 설레는 일

유일연 CFO는 여러 차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여년간 로레알에서 근무하며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다름 아닌 ‘일이 즐거웠다는 사실’이었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다. 로레알에서 근무한 지 22년이 되었지만 유일연 CFO는 여전히 매일의 업무가 짜릿하고 즐겁다고 하셨다.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며, 금요일 저녁에 체력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한 주를 완전히 소진하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지금 나의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곤 합니다.”

이는 근거 없이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에 깊이 몰입한 끝에 얻게 되신 자신감에 가

까웠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비롯한 또래의 20대들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준비 과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곤 한다. 각자의 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일연 CFO가 해주신 말씀을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받아들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히 대학 시절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이라는 인연으로 만나 뵈게 된 유일연 CFO와의 미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태도였다.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조언에 대해 루키즈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덕분에 오히려 그 순간에 이끌려 ‘성공한 선배님의 길을 무작정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겠다’는, 더 오래, 깊게 지니고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

3

즉흥적으로 온 파리, 2년 뒤 그는 Bereal 엔지니어로!

박선영(미디어 22학번)

June 30, BeReal (Paris)

파리 1일차의 마지막 일정은 Bereal의 1년차 iOS 엔지니어인 정재무 님을 만나 보는 것이었다. 만남은 엔지니어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파리 시내 중심에 위치한 식당 Baguette에서 이루어졌다.

엔지니어님은 학부에서 미디어를 전공하셨지만, 졸업 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42' 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들어섰다. 해당 교육기관의 한국 캠퍼스가 없어지며 자연스럽게 파리 캠퍼스로 옮겨 교육을 받은 그는 졸업 후 소셜미디어 기업 Bereal에 입사하며 파리에서의 첫 커리어를 시작했다. 정재무 엔지니어는 지나치게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일단 행동하다 보니 지금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파리에서의 삶

정재무 엔지니어가 들려준 파리에서의 삶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그려진 에밀리의 삶처럼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다. 파리는 거주 환경에 비해 물가와 집세가 굉장히 비싸기에 파리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일하는 Bereal은 파리에 위치해 있지만, 빠르게 프로젝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럽의 기업 문화보다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 문화에 가까웠다. 그렇기에 프랑스인들은 버티지 못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으며, 그가 맡은 iOS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반에 걸치는 일들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 부담, 파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들을 하나씩 어려움들을 혼자 해결해 나가며 그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I가 모든 일을 대체한다고?

우리의 대화는 미디어 루키즈 탐방 주제인 AI로 나아갔다. 정재무 엔지니어는 AI를 가장 최전선에서 사용하고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AI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업무 속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AI는 채용과 업무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딩, 마켓 리서치와 기획 등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학생인 우리 수준에서는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 사용 방식이라면, 업계에서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받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이러한 방식은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즉 사람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걱정과 감춰 있는 것을 넘어, 인간의 좋은 결과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을 새로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무 엔지니어는 이러한 능력이 단기간에 빠르게 길러지지 않으며, 좋은 사례를 접하고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의 강력한 AI 규제

유럽은 EU의 AI Act를 필두로 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위험 기반의 강력한 규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업계에서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여쭙다. 정재무 엔지니어는 “AI는 미국에서 빠르게 개발되는데, 유럽의 경우 규제 정책이 강하다 보니 신기술들이 늦게 도입되거나 베타 버전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엔지니어로서 규제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불만을 체감하는 유럽 연합은 자체 AI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근황도 언급했다.

일단 행동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정재무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건 글썄요, 제가 그리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어서요”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고민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에 둘러싸였다면 그는 지금 이곳에 없을 것이다. 파리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굳이 가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기에 그는 파리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이곳까지 흘러왔다. 때로는 깊은 고민보다 눈앞의 기회를 잡는 무모함과 단순함이 우리를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재무 엔지니어의 삶은, 곧 사회로 나가야 할 미디어 루키즈들에게 “일단 시작해도 된다는” 용기를 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July 1, EC (Brussels)

After having a long delay for the train the Korea University Media Rookies team finally made it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Brussels. After going through security we were warmly greeted by the staff and even took memorable pictures with our Korea University banner. Before the presentations started, one of our team members briefly introduced Korea University and explained the purpose of our visit. The speakers were very friendly and even asked about our travel schedule and the places we had visited, which created a comfortable atmosphere for all of us.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The first session introduced the European Union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We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the EU, its main institutions, and how the Commission works to propose legislation, implement policies, manage the EU budget, and represent the EU internationally. It was also interesting to learn how the EU affects citizens' daily lives through policies such as free movement, healthcare access abroad, roaming services, and the common charger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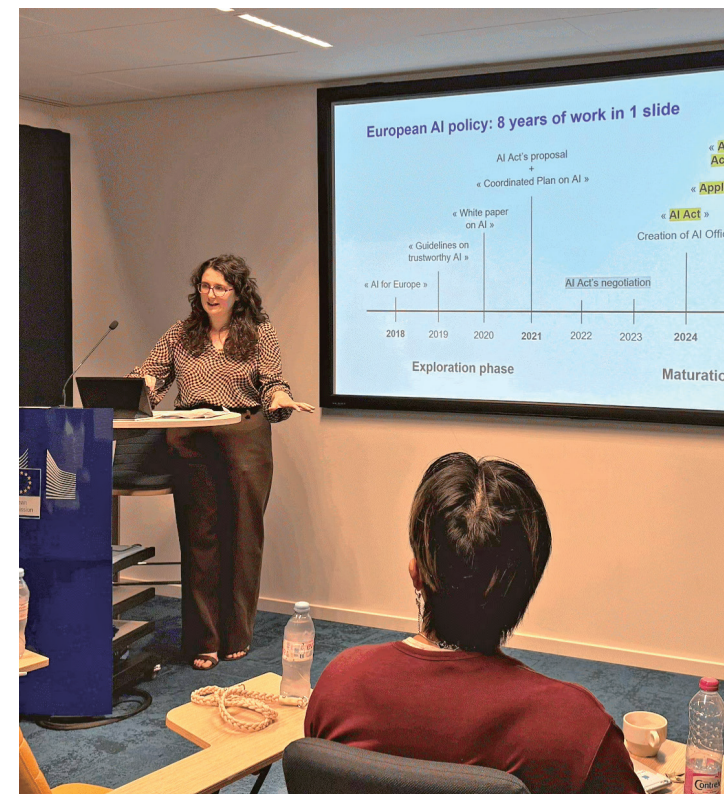
Q&A on AI and Copyright

During the Q&A session, I asked whether the European Union was planning to introduce a new copyright law specifically for generative AI. The speaker explained that there is currently no separate legislation planned, however the existing framework is being evaluated this year. I also asked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I and the EU's attitude towards this issue. The answer was really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because they explained that the EU aims to integrate AI infrastructure with sustainable energy systems. Rather than allowing data centers to compete with local communities for electricity the goal is to create an energy ecosystem where AI infrastructure can also contribute back to the energy grid by reusing excess heat and improving overall efficiency.



AI Act and Digital Services Act

The second session focused on digital policies. Especially the AI Act and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The second speaker talked about how the AI Act is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llows a "risk based" approach. The DSA was also introduced as an important regulation designed to create a safer online environment by protecting minors, increasing transparency, and requiring larger online platforms to take greater responsibility for harmful content and systemic risks.



Overall, I personally think this visit gave our team a much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European Commission approaches AI governance and digital platform regulation. It was especially interesting to see how policies that I had previously studied in class are actually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practice.

LS

신뢰가 수익이 되는 언론, Le Monde

김다연(미디어 23학번)

July 2, Le Monde (Paris)



역사적인 건물들이 늘어난 파리 13구,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거대한 현대식 건물. 햇빛이 반사돼 하늘빛으로 반짝이는 유리외벽과 프랑스 최고 언론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웅장함에 절로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다.

프로그램은 총 세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CEO 루이 드레퓔스, 뉴스룸을 담당하는 부편집장 알렉스 델캉, 그리고 구독·오디언스 전략을 총괄하는 CD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인 언론사가 작동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현업 담당자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고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기자가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기사를 늘린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15년째 르몽드 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 루이 드레퓔스였다. 그는 르몽드 그룹의 수익 구조부터 짚었다.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가 아닌 독자 구독에서 나온다. 그들에게 신뢰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다. 드레퓔스는 “독자의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믿음이 낳은 가장 역설적인 선택은 뉴스룸 확장이었다. 다른 언론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사를 줄이는 동안, 르몽드는 2010년부터 꾸준히 기사를 늘려왔다. 310명이었던 기자는 현재 570명에 달한다. 그는 기사를 늘리는 것을 뉴스룸에 대한 재투자(reinvestment)라고 설명했다.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투자가 경제적 관점에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다소 새로웠지만, 실제

수치가 그 논리를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르몽드는 어떻게 이 구독자들을 끌어들이었을까. 드레퓔스가 소개한 전략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활용이었다. 르몽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다. 단, X(구 트위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행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젊은 세대가 모여 있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먼저 풀어 관심을 얻은 뒤, 그 세대가 성장해 자연스럽게 르몽드를 구독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었다. 단순한 채널 확장이 아니라 미래 구독자를 미리 확보해두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사례는 2023년 신설된 ‘인티머시(Intimacy)’ 섹션이었다. 연애, 성생활, 육아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이 섹션은 단 두 명의 기자가 운영하는데도

르몽드 전체에서 구독 전환율이 가장 높은 섹션으로 자리 잡았다. CDO는 이 섹션이 이전에는 르몽드를 읽지 않았던 여성 독자를 대거 유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치·경제 기사만 가득한 신문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독자층을 다양하게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구독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디지털퍼스트, 뉴스룸을 바꾼다

두 번째로 만난 뉴스룸 부편집장 알렉스 델캉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불과 두 달 전 단행한 조직 개편이었다. 기존에는 각 부서가 디지털과 지면 편집을 동시에 담당했지만, 이제 기자들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한다. 지면 편집은 별도의 전담팀이 맡는 구조다. 전체 독자의 90%가 디지털로 읽는 시점에서, 뉴스룸의 우선순위가 그에 맞게 재편된 것이다. 아무리 정통 언론사라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바뀌어 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세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팩트 체크 전담팀 '데코되르(Les Décodeurs)'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팩트 체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델캉의 답은 간결했다. 별도의 서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담당해 각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에서 판단의 편견을 자연스럽게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구조 자체가 견제 장치인 셈이었다.



AI와 따로, 또 함께

이번 탐방의 테마가 'AI와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이었던 만큼, AI에 대한 이야기는 세 파트 모두에서 빠지지 않았다. 전통을 중시하는 언론사인 만큼 AI 도입에 더 보수적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다.

르몽드는 2024년 3월 OpenAI와 콘텐츠 활용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최초의 언론사다. 계약 조건은 까다롭게 설정됐다. 사진과 영상 제공은 제외했고, ChatGPT가 르몽드 기사를 인용할 때마다 브랜드 로고와 하이퍼링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수익의 25%는 뉴스룸 기자들에게 배분된다. AI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명확히 구분했다. 2023년 편집국 차원에서 채택한 'AI 윤리헌장'에는 AI가 기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미지 생성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반면 영어판 번역, 기사 오디오 버전 제작 등에는 AI를 적극 활용한다. 르몽드 영어판은 매일 70건의 기사를 AI가 1차 번역한 뒤, 10명의 영어권 기자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드레뤼스는 "영미권 디지털 시장에서 뉴욕타임스 구독자의 단 5%만 가져와도 충분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말했다. AI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다.

"AI가 르몽드의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환각 현상을 일으키면 브랜드 평판에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드레뤼스는 이렇게 답했다.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위험이 있더라도 협력하는 쪽을 택한다." 전통과 혁신을 대립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르몽드가 남긴 질문

이번 답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 깊은 언론인 르몽드가 변화에 매우 열려있다는 점이었다. AI에도, 디지털 전환에도, 인티머시 같은 새로운 콘텐츠에도 열려 있었다. 그 바탕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질 높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결국 르몽드만의 독자성을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독자들이 계속 르몽드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라는 자신감이었다. 르몽드의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구독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본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언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가. 이는 비단 르몽드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이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일 것이다. 르몽드는 이미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독자성과 신뢰도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 답을 지켜올 수 있었다. 큰 배움을 안고 파리 13구 신사옥을 나서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만들어갈 언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다.



FACTS MATTER

전수현(미디어 21학번)

July 2, AFP (Paris)

AFP는 로이터, AP와 함께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FACTS MATTER'라는 가치로 신속하고 간결하면서도 중립적인 정보를 생산한다. 통신사는 각지에 기자를 파견해 제작한 콘텐츠를 전 세계 언론사, 대기업과 정부 기관 등에 판매한다.

루키즈는 파리에 위치한 AFP를 방문해 제롬 마틴 AFP 글로벌 미디어 총괄(이하 미디어 총괄)을 만나 AFP의 팩트체크팀에 관해서, 그리고 AFP가 바라보는 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다.

저마다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팩트

제롬 마틴은 AFP 팩트 체크 프로젝트의 역사와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팩트체크팀은 AFP의 가장 큰 자랑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 세계 최초의 팩트 체크 프로젝트다. 일반적으로 AFP의 콘텐츠는 6개의 언어로 제공되지만, 팩트 체크 업무는 각국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총 26개의 언어로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콘텐츠보다 다양한 언어로 팩트 체크를 수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실(FACT)을 바라보는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제롬 마틴 미디어 총괄은 “한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팩트체크가 필요한 정보는 맥락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팩트’를 맥락과 문화에 맞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2023년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네이버와 제휴해 팩트체크를 수행한 적 있다. 하지만 팩트체크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특정 정치 진영의 공격이 거세지자 결국 서비스는 중단됐다. AFP도 비슷한 역사가 있다. 2025년 AFP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 팩트체크를 중단해야 했다. 이처럼 팩트체크의 신뢰도가 공격받는 일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며 그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가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AFP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AFP가 취하고 있는 독립적인 위치로부터 온다. 제롬 마틴은 “AFP는 상업적 이해관계나 정부의 압력에 자유롭다는 점 덕분에 팩트체크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 언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팩트체크의 효용뿐 아니라 언론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48개국 중 37위였고, 프랑스 역시 29%에 불과했다.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가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보다 8%p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뢰 격차는 한국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 전체는 불신하지만, 자신이 택한 특정 뉴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현상이 목격되지만, 이 또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의 뉴스 이용자들은 전통 언론 대신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언론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제롬 마틴 글로벌 미디어 총괄은 조금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의 방법으로 극화된 사람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답변과 달리, 제롬 마틴 총괄은 이미 극화된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신 전통 언론의 돌파구는 기존 독자와 전통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신뢰를 확보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신뢰를 공고히 다지고,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AI 챗봇 기반 뉴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통 언론의 역할은 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극단은 유튜브로 떠나고 중도적 독자는 AI를 통해 뉴스를 쉽게 읽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AI 기반 정보의 확산은 언론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허위 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 챗원드 AFP 글로벌 뉴스 국장은 "AI 혁명에 특히 중요한 것이 정확성과 신뢰성이라는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 양극화와 AI가 초래하는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언론이 잘하던 것, 잘해야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AFP의 철학은 오래되고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시의적절하고 AI로부터 발발한 언론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합니다"



유럽 여행을 간다면? 이것만큼은 챙겨가보자!

웹진을 보고 있는 학우들 중에는 ‘나도 이번 방학에 유럽 여행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여행을 앞두고 ‘그래서 대체 뭘 챙겨가야 하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답게 인터넷에 ‘유럽 여행 준비 방법’, ‘유럽 여행 준비물’을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 필자 역시 루키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준비물 중에서 무엇을 정말 챙겨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여행을 무사히 다녀온 지금, 그중에서도 ‘이건 가져가길 잘했다’ 혹은 ‘다음에는 무조건 챙긴다’ 싶은 것들이 생겼다.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참고해보시길!

1. 샤워기 필터



출처: 다이소

사실 필자는 샤워기 필터를 가져가지 않았다.

유럽의 물에는 한국보다 석회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샤워기 헤드를 바꾸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고, 어차피 2주 정도인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리 숙소에서 처음 샤워를 한 날, 예상과 달리 물이 꽤 끈 찰랐다. ‘생각보다 수질이 좋은데?’라고 생각하며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문득 샤워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룸메이트였던 호리 양이 이미 샤워기 필터를 갈아 끼워놓았던 것이다.

더 놀라웠던 건 샤워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필터가 제법 뿌옇게 변해 있었다는 점이다. 그 모습을 보고 ‘아, 다음에 유럽 올 때는 샤워기 필터를 꼭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의 자신을 위해 하나 준비해 가시기를 바란다.

2. 핸드폰 줄

스마트폰 케이스 안쪽에 끼운 뒤 아래쪽 충전 구멍으로 빼서 사용하는 핸드폰 줄.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 이후 지금까지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유럽 여행에서는 관광지를 돌아다닐 일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소매치기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핸드폰은 사진을 찍고, 지도를 보고, 검색을 하느라 계속 손에 들었다 놔다 하게 된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유일한 연락망이 사라지는 아찔한 상황은 상상만 해도 싫다.

핸드폰 줄을 사용하면 손목에 걸어둔 채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어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 다른 짐을 들고 다닐 때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줄어든다.



3. 휴대용 전기포트와 컵라면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면 보통 적어도 1~2주 정도는 머무르며 다양한 빵과 디저트, 각 나라의 유명한 음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한 3일쯤 지나면 얼큰한 국물이 생각난다.

그럴 때 휴대용 전기포트가 있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숙소로 돌아와 뜨끈한 라면 국물을 먹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컵라면 역시 몇 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숙소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변 일반 마트에서는 원하는 한국 컵라면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집에 여유가 있다면 몇 개 정도 캐리어 구석에 끼워 넣어보자.

여행지에서 먹는 라면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두 배쯤 맛있다.



출처: 지티스 네이비스토어

4. 보조배터리



아침에 핸드폰을 100% 충전하고 나와도 여행지에서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닳는다. 사진을 계속 찍고, 지도를 보고, 맛집을 검색하다 보면 어느새 빨간 배터리 표시를 마주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길을 찾거나 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그렇기에 여행지에서 보조배터리는 유용한 물건이다. 다만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타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공항에서 담아놓은 캐리어를 다시 활짝 여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

5. RFID 방지 가방 또는 지갑



RFID는 전파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여행지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카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드물지만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고,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사람이라면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카드지갑이나 여권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가격대도 상당히 다양한데, 필자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제품을 골랐다.

여행에서는 마음의 평화도 꽤 중요한 준비물이다.

6. 여권 사본

'여권을 들고 다니는데 굳이 사본까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평소에는 쓸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권 사본은 어디까지나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가 여권 분실이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물론 속상하지만, 해외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여권을 잃어버리면 각종 행정 절차까지 복잡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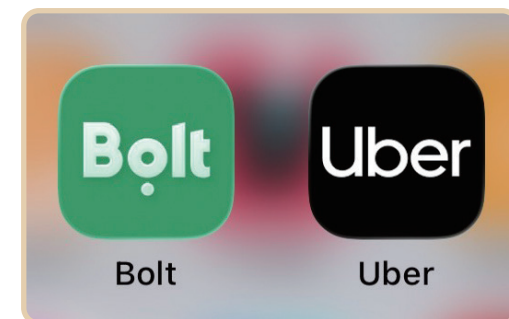
여권 사본을 준비해두면 분실 시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사본 두 장을 인쇄해 원본과는 따로 보관하며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녔다.

7. 교통수단 앱과 결제수단 미리 등록하기

한국에서 택시 호출 앱을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볼트(Bolt)나 우버(Uber) 같은 앱을 이용할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앱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한국에 있을 때 미리 설치하고 결제 수단까지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자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낯선 해외에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카드 등록부터 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자.

출국 전에 미리 한 번씩 로그인하고 결제수단까지 확인해두면 여행지에서는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8. 편안한 운동화

평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유럽 여행을 가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걷게 된다. 루키즈 일정 중 하루 있었던 자유 일정 때도 '오늘 그렇게 많이 걸었나?' 싶었는데 확인해보니 2만 보가 찍혀 있었다.

게다가 유럽에는 한국보다 돌바닥이나 울퉁불퉁한 길이 많은 편이다. 예쁜 구두나 샌들도 물론 좋지만, 쿠션감이 충분한 편안한 운동화 하나는 꼭 준비해서 여행을 즐기길 추천한다.



여행을 떠올려보면 설렘은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는 것 같다. 어디를 갈지 정하고, 일정을 짜고, 캐리어 안에 하나씩 짐을 넣는 순간부터 이미 여행은 조금씩 시작된다.

물론 사람마다 여행 방식도 다르고 필요한 준비물도 다르다. 위의 여덟 가지가 모두에게 필수템인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직접 유럽을 다녀오며 유용하다고 느꼈거나 다음 여행에도 챙기고 싶은 것들을 모아보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우분들 중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준비 과정부터 마음껏 설레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을 잔뜩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10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김서연(미디어 23학번)

July 3, 국경없는기자회 RSF (Paris)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 우리는 뉴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진실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기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경없는 기자회 본부로 향했다.

RSF: 언론을 보호하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니 리셉션 뒤에 붙어 있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What the government may not understand is that the more of us they lock up, the stronger we become.”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회장 피에르 아스키(Pierre Haski)를 만나 국경없는 기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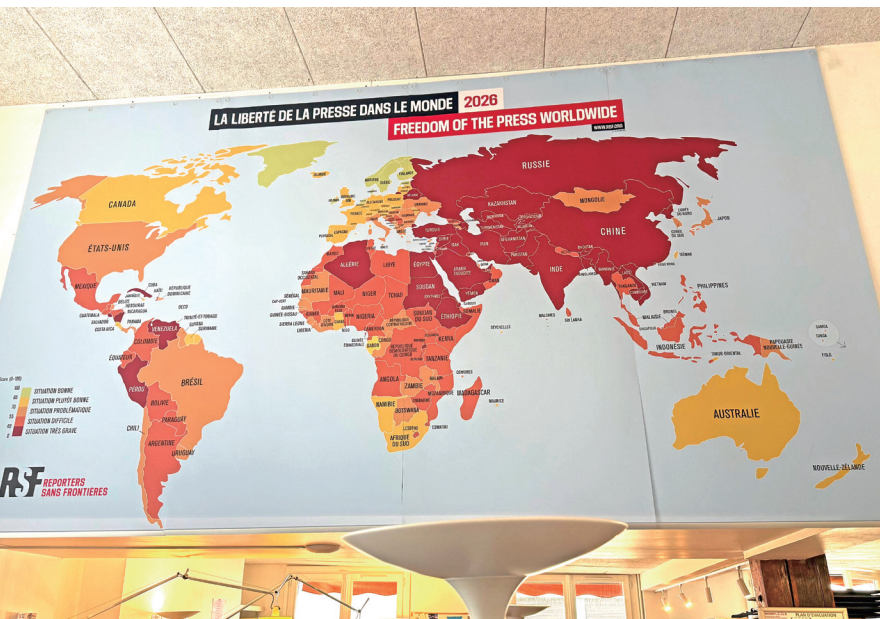
RSF(Reporters Sans Frontières)라고도 불리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과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언론인에게 헬멧, 조끼 등을 배부하며 신체적, 물리적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시설 및 경로를 제공한다. 취재 환경이 극도로 위험한 지역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직접 현지 센터를 세워 언론인을 보호하는 사업(Press Freedom Centers)과 기자들의 전자기기에서 스파이웨어를 찾아내고 차단해주는 디지털 사이버 방역소(Digital Security Lab)이 그 예시다.

JTI: 신뢰도를 인증받다

JTI(Journalism Trust Initiative)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핵심 활동 중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선정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하는 프로젝트이다. 흥미로운 점은 처벌을 통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고 언론 신뢰도를 확보하려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JTI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좋은 기사에게 알고리즘 노출, 광고 수익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나쁜 언론에게 낙인을 찍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HACCP 인증 마크를 보고 음식을 고르고, KC 인증 마크를 보고 전자 제품을 고르는 것과 같이 JTI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인증 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사는 어떻게 판별할까?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연구자, 기자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정보의 퀄리티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120여 개를 마련했다. 피에르 아스키는 JTI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칫하면 좋은 기사를 ‘고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검열로 작동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투명성의 기준을 준수해 기사를 선정하는 JTI는 언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World Freedom Index: 세계 언론 자유를 평가하다

국경없는 기자회 본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부 곳곳에 붙어 있는 세계지도였는데, 지도 속 국가들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칸칸이 칠해져 있었다. 이것은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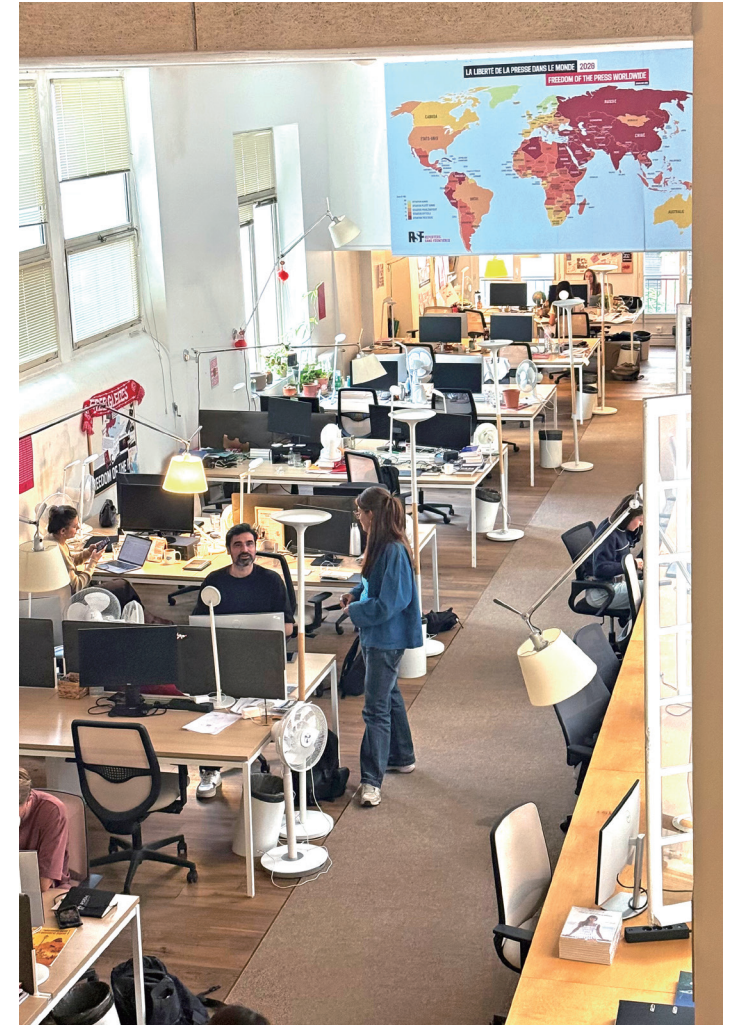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Freedom Index)를 발표한다. 총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100점 만점의 점수로 해당 국가의 언론자유 지수를 산정한다. 점수에 따라 'Good'에서부터 'Satisfactory', 'Problematic', 'Difficult', 'Very Serious'의 5단계로 등급이 분류되며, 각 국가의 언론자유 지수를 구간별 색깔로 표현해 한눈에 언론자유 지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 18개 비정부 기구와 150명 이상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를 산출하는데 '정치적 상황', '법률',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 '안전성'의 다섯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전쟁과 AI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세계 언론자유 지수가 2002년 조사 시작 이래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피에르 아스키는 언론자유가 위협에 처하면 다른 자유들도 연이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가에서 언론 자유를 안일하게 여기면, 그 국가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

언론에 대해 묻고 답하다

피에르 아스키의 설명이 끝난 후 우리는 저마다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함께 거론되는 것이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문제인 만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피에르 아스키 회장은 개인 정보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함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한계가 존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언론 자유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그 국가의 언론 자유의 척도를 결정하게 된다.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어떤 전문가도 정확한 균형점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고, 레거시 언론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피에르 아스키는 이것은 언론인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뉴스 이용률이 낮아지면 대체로 사람들이 왜 뉴스를 회피하는지 등을 조사해 그 이유를 수용자로부터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자가 사람들이 보고싶은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피에르 아스키의 답변은 핵심을 찌르는 답변이자, 저널리즘을 넘어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산업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정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언론인은 늘 고민해야 한다.



피에르 아스키와의 만남을 통해 배운 국경없는 기자회의 다양한 활동은 더 나은 언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소셜 미디어와 AI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의 양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무수히 많아졌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의 답변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허위정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JPI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 세계 언론자유 지수와 같은 감시 및 환기 장치처럼 언론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 차원의 노력만으로 언론의 위기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언론사, 언론인, 기구만의 몫이 아니라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언론을 선택하는 수용자의 태도가 뒷받침될 때 언론의 자유와 신뢰도는 함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80

모두의 경험으로 헤쳐 나가는 창업 생태계

주가윤(미디어 23학번)



July 3, Station F (Paris)



루키즈 연수의 마지막 파리 일정은 Station F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rea Startup Center(KSC) 이기원 매니저와의 미팅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KSC는 해외 거점 지부를 두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의 대출, 비자 등의 문제들과 시장 진입, 네트워킹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이곳에서 이기원 KSC 매니저를 만나 Station F의 운영 방식과 프랑스 내 한국 스타트업의 입지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고민을 나누며 성장하는 스타트업들

마치 커다란 기차역처럼 보이는 Station F는 실제로 페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다. 미팅과 교류를 위한 셰어 존, 입주 스타트업 전용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존, 그들이 쉴 수 있는 칠 존으로 구성된 이곳은 프랑스의 통신 사업자인 자비에 니엘이 만든 스타트업 단지로, “스타트



업이 가진 문제의 90%는 이미 다른 스타트업들이 겪었거나 해결한 문제”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Station F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서로가 가진 고민과 현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한곳에 모아 성장을 돕고 있다.

Station F는 주로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이 선정한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파리 내 대학 창업지원부처 등도 이곳에 입주해 있다.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더 탄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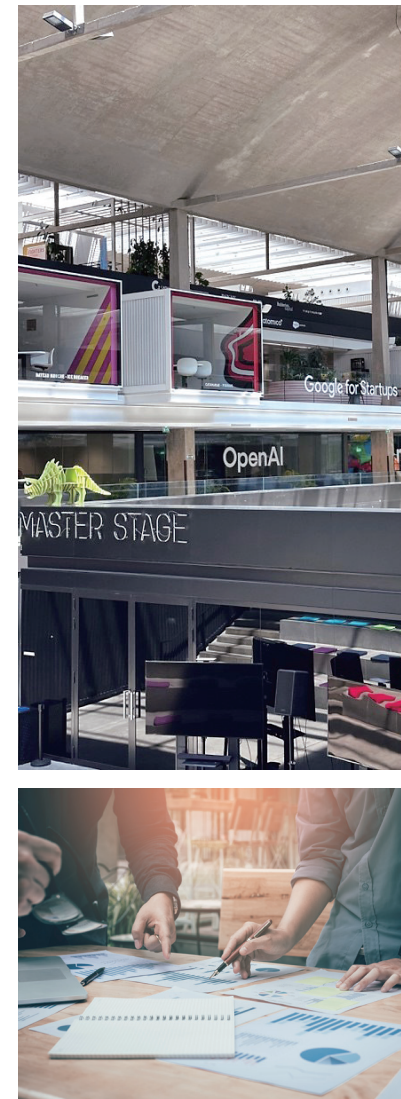
설립 목적에서 언급했듯 Station F가 특히 집중하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모든 스타트업 기업, 프로그램 매니저, Station F 직원 등과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자판기나 화장실 등을 이동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들도 열리고 있고 설명했다. KSC 파리 지부에서는 지난해 10월 Station F 공간을 빌려 ‘K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열었고, 올해에는 비바텍 행사장 근처에서 K 유럽 스타트업 데이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프랑스, 무엇이 다른가

프랑스의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가 한국 제품과 기업에 대한 구매와 투자를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프랑스가 한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50여 개에 그쳤는데, 현실적으로 프랑스가 창업을 하기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TV,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광고 방식의 마케팅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지인 추천이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고리를 외국 기업, 특히 새로운 스타트업이 파고들기에는 많은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국가 중 프랑스에 KSC 지부를 두게 된 데에는 프랑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기조도 큰 몫을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비자, 지원 등에서 제한을 줄이고 있기에 미국보다 자유로운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번 신뢰를 얻어 거래처를 개척한다면 거래가 잘 끊이지 않아 안정성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파리 대학의 창업 교육이 한국 대학의 창업 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는 대학창업지원본부의 지원 사업이나 수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계획서나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이곳에 입주한 대학의 창업지원부에서는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이들을 한데 모아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특히 고급 인력이 창업 분야로 진출해야 창업 생태계, 나아가 경제까지 활성화된다고 믿기에 창업 지원이 활발한데, 구직난으로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지로서 권장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본받을 만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Station F에서 배운 것은 스타트업 단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프랑스 시장의 특성뿐만이 아니었다.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다른 기업들이 조연자 혹은 동료로서 함께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공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경쟁보다는 상생, 견제보다는 소통을 통해 스타트업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Station F의 운영 철학은 비단 창업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모든 이들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법하다.

서로의 사회를 비추어 본 시간

정성준(영어교육 21학번)

July 6, 튀빙겐대학교 미디어 세미나 (Tübingen) [미디어학과]

미디어 루키즈는 튀빙겐대학교를 방문해 미디어연구소의 Guido Zurstiege 교수와 그의 지도 대학원생들과 조인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튀빙겐 구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호엔튀빙겐 성 안의 세미나실에서 열렸는데, 중세의 성에서 K-콘텐츠와 AI 시대의 미디어 환경을 논한다는 것이 이번 답사의 성격을 상징하는 듯했다. 세미나는 우리 측의 발표 두 세션과 그에 이어지는 자유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발표 이후에는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넘어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사회를 비추어 보는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Zurstiege 교수는 우리를 성 안의 'Duke's Room'으로 직접 안내하며 맞아 주었다. 특별한 손님에게만 개방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에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 안에 자리한 이 공간에서는 튀빙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였고, 대학 전체가 품고 있는 역사적 분위기가 방문의 인상을 한층 깊게 만들었다. 교수는 튀빙겐대학교가 독일의 '엑셀런스 대학(Universities of Excellence)' 지위를 연속으로 유지해 온 성과와 그 의미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고려대학교와의 교류에서 배우고 싶은 점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K-콘텐츠 산업, 내부자의 우려

첫 번째 발표는 "Who Owns K-Contents?"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가 소비하는 K-콘텐츠를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세 가지 이슈로 정리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K-pop에서 'K'가 열리는 현상(영어 가사의 급증, 외국인 멤버 중심의 현지화 그룹), 이른 나이의 연습생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조된 아이돌'과 그 이후의 노동소외·인간소외, 그리고 오징어게임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례로 본 플랫폼 종속과 IP 소유권의 문제였다. 독일의 미디어투자자무법과 프랑스의 SMAD 법령을 해법의 참조점으로 제시한 부분에서 튀빙겐 학생들의 몰입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발표 후 질의에서는 예상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K-pop이 결국 하나의 산업 구조에 불과하다면 그 구조는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은 발표의 논지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고, 우리는 시스템이 '방법론'으로 수출되는 현 상황에서 인간 아티스트가 갖는 고유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이 외

에도 한국 정부가 K-pop 산업에 대해 어떤 규제와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작 한국 사람들은 K-pop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 대중이 K-pop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산업의 그늘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에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AI-미디어 환경

두 번째 발표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AI가 매개하는 미디어 환경이 결합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다뤘다. 세대 격차와 남녀평등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층의 보수화 현상이 중심 주제였다. 특히 남학우 발표자들이 당사자의 시선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 남녀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남성의 군복무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많은 한국 남성들이 20대 초반을 군대에서 보내면서 남성성을 재정의하거나 성 정체성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독일 역시 우익 정당이 부상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기에, 학생들은 한국의 상황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부정적 뉘앙스를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군복무 문제가 젠더 갈등과 얽히게 된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마침 독일에서도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터라 많은 질문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오갔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진 두 사회가 놀랍도록 비슷한 갈등의 구조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발표를 앞두고는 모두가 상당히 긴장해 있었지만, 독일 학생들이 발표를 일방적으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분위기는 금세 편안해졌다. 격식을 갖춘 세미나라기보다 하나의 대화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 점이 이 경험을 한층 즐겁게 만들었다.

세미나 이후 - 튀빙겐에서의 하루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독일 학생들이 우리를 점심 식사에 데려가 현지인들이 실제로 즐겨 먹는 음식을 소개해 주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라는 커리부어스트(Currywurst)를 함께 맛보았고, 식사 중에도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식사 후에는 학생들의 추천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함께 시내를 걸었고, 몇몇 학생들은 시티투어와 보트투어까지 동행해 진심 어린 환대를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는 튀빙겐을 가로지르는 네카어 강에서 함께 보트를 타며 강 위에서 바라보는 구시가지의 풍경을 즐겼고, 저녁에는 다 같이 회식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낮의 세미나에서 진지하게 서로의 사회를 논하던 학생들과 저녁에는 웃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준비한 '한국 내부자의 우려'가 결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문화 산업의 표준화와 플랫폼 종속, 미디어가 증폭시키는 정치적 양극화는 형태만 다를 뿐 독일에서도 진행 중인 현상이었고, 그렇기에 토론은 일방적인 소개가 아니라 서로의 사회를 참조하는 대화가 될 수 있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자민족우월주의도 자기비하도 아닌, 구조를 분석하는 시선을 유지하려 애썼던 점이 결국 이런 대화를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고 생각한다.

독일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독일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얼마나 신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인상 깊었다.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문화적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도시, 따뜻한 환대, 의미 있는 토론과 잊지 못할 추억이 어우러진 이날은 이번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다. 학술적 대화에서 시작된 관계가 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며, 이날의 만남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연결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하루를 마쳤다.

1년의 기록을 들은 시간

안서연(미디어 24학번)

July 7,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워크샵, CZS Institute (Tübingen) [한국학과]

튀빙겐에서 맞은 셋째 날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타고 튀빙겐 대학 한국학과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건물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튀빙겐 대학의 건물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다. 다른 학과의 건물을 가기 위해 버스로 몇십 분씩 이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한국학과 건물에는 그간의 일정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아시아의 색채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벽에는 한국의 위인에 대한 소개와 사진들이 붙어있었고, 중국학과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한자로 쓰인 포스터도 종종 눈에 띄었다.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처럼 한국학과다운 한국어 전공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제주도 전래 농기구'처럼 우리에게 생소한 책까지 있었다.

워크샵이 진행될 강의실에 도착하니,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한국학과 이수연 조교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곧이어 11명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강의실에 차례로 들어왔다. 튀빙겐 한국학과와 졸업 요건은 한국 대학교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유학하며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득하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돌아온 이들이었다. 워크샵은 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마친 뒤 작성했던 수기를 직접 들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년 학생들이 작성하는 수기는 팜플렛 형태의 책자로 엮여 10년 넘게 아카이빙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로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만큼 문화적 가치가 있고 깊이 있게 축적된 자료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대표 학생 다섯 명의 수기 발표를 들으며 든 생각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여행과 삶은 전혀 다르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의 시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적응해온 흔적이 수기 곳곳에 묻어났다.

다섯 개의 창으로 본 한국

다섯 명이 발표한 수기는 소재와 내용에서 각자의 성장과 경험이 뚜렷이 드러났다.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에바는 태극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며 겪은 정치적 오해를 이야기했다. 탄핵 반대 시위가 잦았던 광화문 광장을 지날 때 느낀 불안, 그리고 미국인 남자친구와 지하철을 탔을 때 만난 노인이 반갑게 한미 반공동맹을 언급하며 태극기 패치를 선물로 건넸던 일화가 기억에 남는다. 에바는 그 순간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태극기가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정치적 서사를 소환하는 기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국기가 언제나 그저 국기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이주해 살아온 올하는 한국이

라는 더 먼 나라로 떠나며 느꼈던 이별의 슬픔과 서울 도착 직후의 압도감을 담담히 풀어냈다. 이후 건강 악화와 향수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평소 무뎌보였던 식당 아주머니가 건넨 작은 친절과 위로가 그녀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서울 곳곳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순간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며 '연결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 끝에 내린 결론, "집은 장소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요한나는 한국인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며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설날에 포항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했던 경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느꼈던 환대, 세뱃돈을 받는 순간의 어색함 등을 통해 문화적 장벽과 그 안의 온기를 이야기했다. 라덕은 템플스테이와 전주 한옥마을 방문을 소재로, 발우공양과 묵언 식사 등 낯설었던 경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 카타리나는 고려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으로, 음악방송 방청 경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SBS와 KBS 방문을 통해 살펴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내부 구조가 특히 흥미로웠다.

다섯 편의 수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이들이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을 경험했음에도 모두 전혀 다른 지점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예바의 이야기는 같은 상징이 발화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문화적 상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율하와 요한나의 수기는 공통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수기를 통해 소속감은 국적이나 언어라는 단일한 축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상적이고 사소한 상호작용을 통해 누적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언어적 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이를 통해 소통이 반드시 언어적 유창함을 전제하지는 않으며, 비언어적 태도와 반복된 호의 또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커뮤니케이션 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카타리나의 발표는 한국의 엔터 구조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관찰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웠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팬덤 문화의 절차가 그녀에게는 정교하게 설계된 낯선 산업 시스템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산업의 논리를 당연하게 내면화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게 했다.



고정된 의미를 넘어: 전통의 재정의와 K-pop의 경계

이렇게 각자 다른 지점에서 발견한 의미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었다. 우리가 '전통'과 '문화'라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규정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독일 학생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전통'이 구분되며, 최근 대중문화에서는 과거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새로운 전통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새로운 전통은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계속해서 영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K-pop 아이돌의 음악이나 의상 등에 전통적 요소가 이용되고 있는 추세를 대표적인 현상으로 언급했다. 이 논의에서 '전시된 전통(displayed tradition)'이라는 표현도 함께 등장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한국인들조차 전통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기보다, 미디어와 관광 산업이 상업적으로 배치해둔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국인으로서의 시선을 전달했다.



한국을 다시 읽다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들이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을 경험했음에도 저마다 전혀 다른 지점에서 의미를 찾아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열한 명 남짓한 학생들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을 보는 시선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간 '전시된 전통'과 'K-pop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한독 문화 비교를 넘어 한국 사회를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국인 스스로도 미디어와 관광 산업이 배치해둔 전통을 그대로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K-pop을 완전한 한국의 것으로도 완전한 외부의 것으로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새삼 낯설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이 낯설고 먼 한국에서의 1년을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자기 성장과 정체성 탐구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한국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으로 소화해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는 유럽에서 답사를 진행한 우리 역시, 비록 짧은 기간의 경험이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점을 갱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K-pop의 정체성'을 키워드로 한 토론토 이어졌다. 독일 학생들은 멤버의 국적이나 가사 언어와 무관하게 멜로디, 안무, 산업 시스템이 K-pop의 문법을 따른다면 그것을 K-pop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K-pop'이라는 명명 자체가 위에서 붙여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인에게도 K-pop이 완전히 '우리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앞서 논의된 '전시된 전통' 개념과 같이, 전통이 미디어에 의해 편집되고 재구성되듯, K-pop 역시 국내와 해외 수용자 각각의 시선이 교차하며 계속 재정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술과 법이 만나는 곳

왕준영(미디어 2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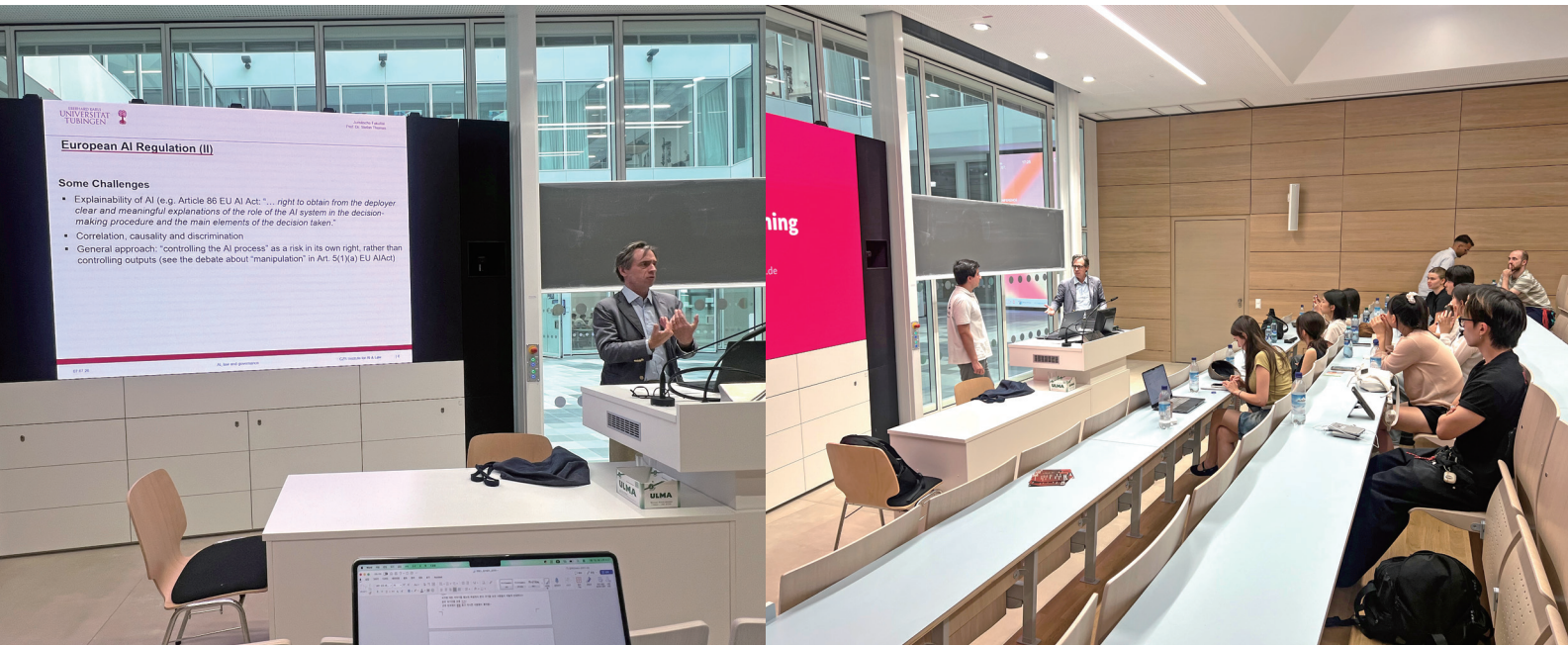
독일 튀빙겐대학교의 CZS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에서 들은 발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남겼다. AI와 법을 연구하는 기관을 방문한 만큼 새로운 규제나 법률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미나가 끝난 뒤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은 법적 기준을 넘어 지식과 학습의 의미에 관한 문제였다.

CZS Institute는 2023년에 설립되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연구소다. 연구소는 대학 중심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들판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층고와 여러 세미나실,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바깥 풍경과 대조되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연구소의 연구 방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Computational Law Lab은 머신러닝과 법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GDPR이나 EU AI Act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제 기술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Law, AI and Society Group은 AI와 법적 프레임워크의 관계를 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해 살펴본다. 법이 AI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시와 차별 등의 위험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연구한다.

Stefan Thomas 교수님으로부터 두 연구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내가 법과 기술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법은 기술이 만들어진 뒤 문제를 수습하는 장치에 머물지 않았다. 기술이 어떤 기준과 방향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결정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선생에게 배우는 학생 모델

다음으로 CZS Institute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Ali Semih Camkerten의 'The Teacher Has No Secrets' 발표를 들었다. 발표의 주제는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였다. 처음에는 생소한 기술적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발표자는 큰 AI 모델과 작은 AI 모델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에 비유했다.

지식 증류란 성능은 뛰어나지만 크고 무거운 AI 모델의 지식과 능력을 더 작고 가벼운 모델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큰 모델은 'Teacher Model', 큰 모델을 따라 학습하는 작은 모델은 'Student Model'이 된다. 이를 통해 높은 비용과 많은 자원이 필요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식 증류는 AI 모델의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발표를 따라갈수록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 학생 모델이 습득한 지식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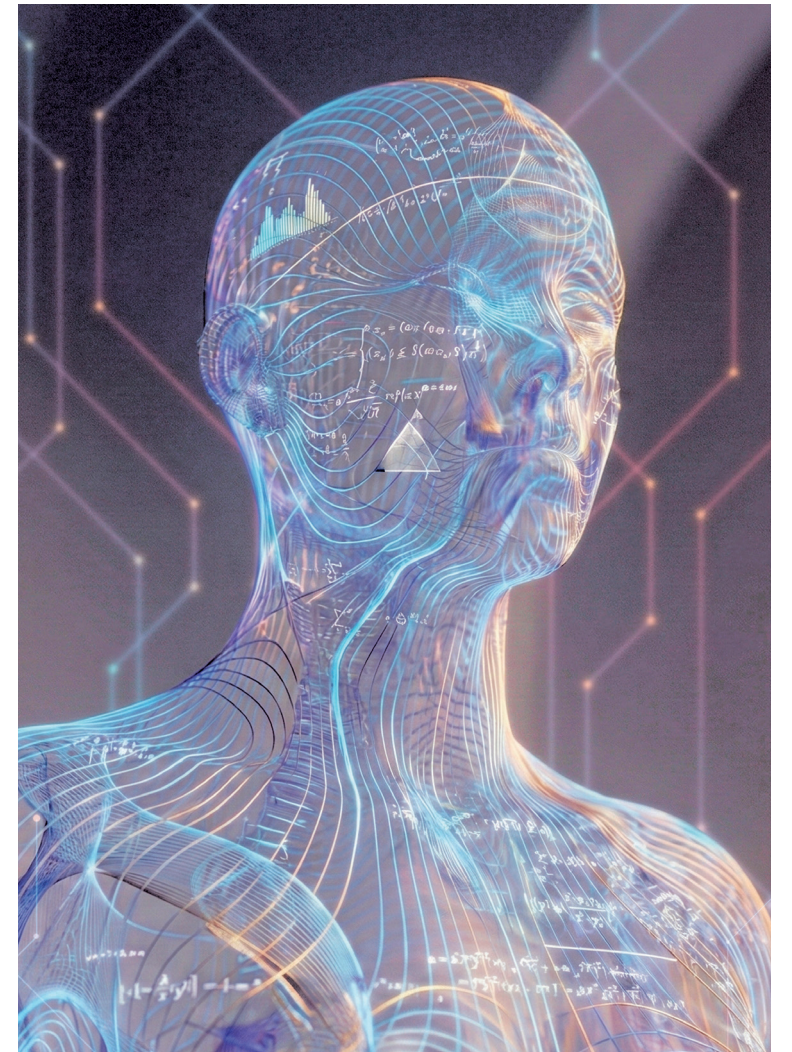
출처가 흐려진 지식

어떤 사람이 피카소의 작품을 직접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렸다면 모방의 대상을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카소를 수십 년간 연구한 화가에게 그림을 배운 뒤 피카소와 유사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그 사람은 피카소를 모방한 것일까. 아니면 스승에게 배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일까. 학생 모델이 선생 모델의 출력을 학습했다라도, 그 출력은 선생 모델이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와 인간의 창작물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결국 지식 증류는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인 동시에, '누구의 지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술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지식의 출처와 기여 관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간의 학습은 AI와 다르다

지식 증류에서 시작된 고민은 결국 인간의 학습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인간도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을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가 만든 것 가운데 기존의 지식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인간의 학습 역시 수많은 관계와 영향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사람과 사회로부터 배우는 과정과 AI가 선생 모델로부터 배우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



CZS Institute를 방문하기 전까지 AI와 법의 관계를 주로 저작권 침해나 규제의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식 증류에 관한 발표를 들으며 문제는 법적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I 모델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의하려면 먼저 지식과 학습, 창작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했다.

하나의 기술적 개념에서 출발한 질문은 법적 문제를 거쳐 인간의 배움에 관한 철학적 문제로 이어졌다.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AI의 지식은 누구의 것인가. AI와 법의 미래는 이 질문에 성급히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출처와 기여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전수현(미디어 21학번)
주가윤(미디어 23학번)

July 8, 벤츠 박물관



슈투트가르트에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단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세계 최초로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유럽 역사의 변곡점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도 단순히 자사 자동차의 발전 역사만을 전하도록 구성되지 않았다.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전시된 전단물과 사진 등은 독일, 유럽, 세계사의 주 흐름과 함께 그 틈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나선형 내리막길과 시간의 흐름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의 전시는 가장 위층에서부터 가장 아래층까지 천천히 내려오며 감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처럼 꾸며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시관의 중앙에는 차체의 모습이, 원형의 벽면에는 시대별로 메르세데스-벤츠와 세계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나타내는 사진과 설명들이 붙어 있다. 층과 층 사이를 넘어갈 때에도 전시를 감상하는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선형 내리막길로 공간을

구성했다. 왼편에는 원형 벽면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발전 과정을 담은 전단물과 사진 등이, 오른쪽 옆은 트여 있지만 아래를 바라보며 자동차들이 가파른 벽면에 붙어 있다. 커다란 차체들을 곳곳에 배치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임을 잊지 않게 하는 한편, 그와 함께한 세계사를 정갈히 배치해 시간의 흐름을 서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선형 내리막길 구성은 공간 자체로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을 어디에 배치하는가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 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과오를 전시하는 용기

전시가 전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맥을 함께한다. 1882년 고틀립 다임러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자신의 정원에서 고속 가솔린 엔진을 개발했고, 4년 뒤에 이것을 소형 탈것에 탑재한다. 1886년에는 칼 벤츠의 세계 최초의 가솔린 삼륜차가 탄생한다. 이로써 인류는 말(馬)에서 내연기관의 시대로 접어든다.

그러나 1910년대가 되자 벤츠와 다임러는 비극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내연기관 기술을 가진 이들 회사가 군수 공장으로 전환됐다. 군용 트럭, 항공기 엔진, 잠수함 엔진 등 전쟁의 일원이 된 것이다. 군수 공장으로 전환되었지만 대공황은 피할 수 없는 악재였다. 이들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26년 합병 절차를 거쳤다. 지금의 이름인 메르세데스-벤츠는 다임러가 제작한 개체 중 하나였던 다임러-메르세데스와 벤츠를 합친 이름이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 메르세데스-벤츠는 나치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한다. 히틀러의 의전용 자동차가 메르세데스-벤츠였을 뿐 아니라 전쟁 기간에는 전투기 엔진과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다. 이들 공장에는 강제 노역이 동원됐다. 씻을 수 없는 전쟁의 과오가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된 셈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독일 재건을 이끌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에게 기업의 이미지는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하지만 이들은 박물관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업적만 자랑하지 않고 부끄럽고 아픈 역사를 비중 있게 전시했다. 어두운 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등 책임 있는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벤츠-메르세데스 박물관이 단순히 자동차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를 담고 있는 박물관으로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모든 역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전시는 단순히 사료와 예술 작품을 한공간에 모아둘 뿐이라는 오명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렇기에 전시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란 공간과 배경음, 배치 구조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도와 의미를 잘 전달할 힘이 있어야 비로소 좋은 전시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와 역사라는 테마에 걸맞는 공간 구성, 이윤 추구 집단으로서의 기업을 넘어서 역사와 함께하고 기업의 잘못까지도 모두 드러내는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은 전시의 미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장소였다.



Rookies' European Log



독일에서 물가 주변을 걷다가 마주하게 된 오리 친구! 사실 조류를 많이 무서워하는데, 저 친구는 왠지 모르게 귀엽고.. 마치 게임에 나오는 NPC 같아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이후에 독일에서 걷다 보니까 공원에도 오리들이 정말 많더라. 한국도 비둘기보다는 차라리 오리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



에펠탑과 바게트, 프랑스를 상징하는 두 가지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담아보았다. 내가 사진에 몰입해있을 때, 화면 밖에는 얼른 바게트를 먹자고 재촉하는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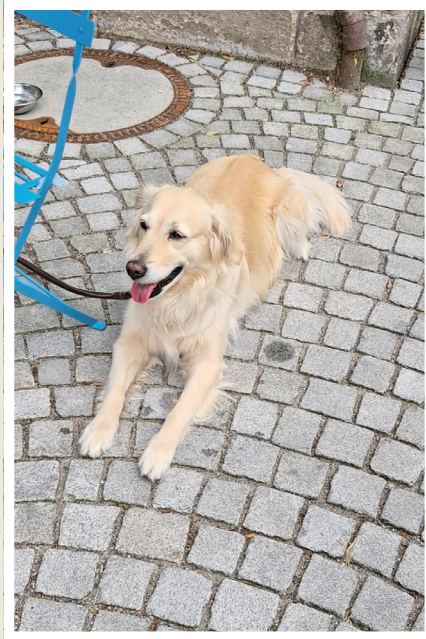


일정을 마친 후 튀빙겐 대학교 학생들과의 맥주 파티에서 추천받은 칵테일 '슈프리트(Spritz)'. 과일의 상큼함과 달콤함이 함께 느껴졌다. 여름이면 튀빙겐대 학생들은 슈프ρί트를 리터 단위로 마신다고 하는데... 여름의 독일과 잘 어울리는 주황빛의 칵테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맞이한 풍경.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노을이 지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전경은 아름다웠다. 비록 사람이 많아 힘들었지만 풍경을 보니 피곤함은 잊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전수현

튀빙겐 시내를 돌아다니다 만난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좋은 건 그래서인가보다.

박선영

우연히 독일 마트에서 발견해서 먹어 본 SALITOS 맥주! 알고 보니 한국에는 살 수 없는 독일 맥주라고 한다. 멕시코 데킬라와 라임 맛이 메인으로 상큼한 맛이 인상적이었다. 맥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이 맥주는 좋아할 것 같다! 여행하다 발견하시면 꼭 트라이해보길 :)



주가윤

브뤼셀에서 돌아오는 기차가 폭염으로 취소되며 다른 기차로 앞당겨졌는데, 택시마저 잡히지 않아 민영교수님, 민혁 조교님과 함께 낙오되었다... 그래도 즐거웠고 벨기에의 대중교통을 타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ㅎㅎ



정성준

파리에서 먹은 스타벅스! 프랑스까지 가서도 가장 많이 찾은 카페는 한국에서도 일상적으로 가는 스타벅스라는 점이 아이러니하지만, 아이스 커피도 없고 팁도 부담스러운 현지 가게들보다 더운 날씨 속에서 '아아' 한 잔을 위해 여러번 방문했다. 생소한 거리에, 읽지도 못하는 프랑스어 간판들 속 'Starbucks' 사인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만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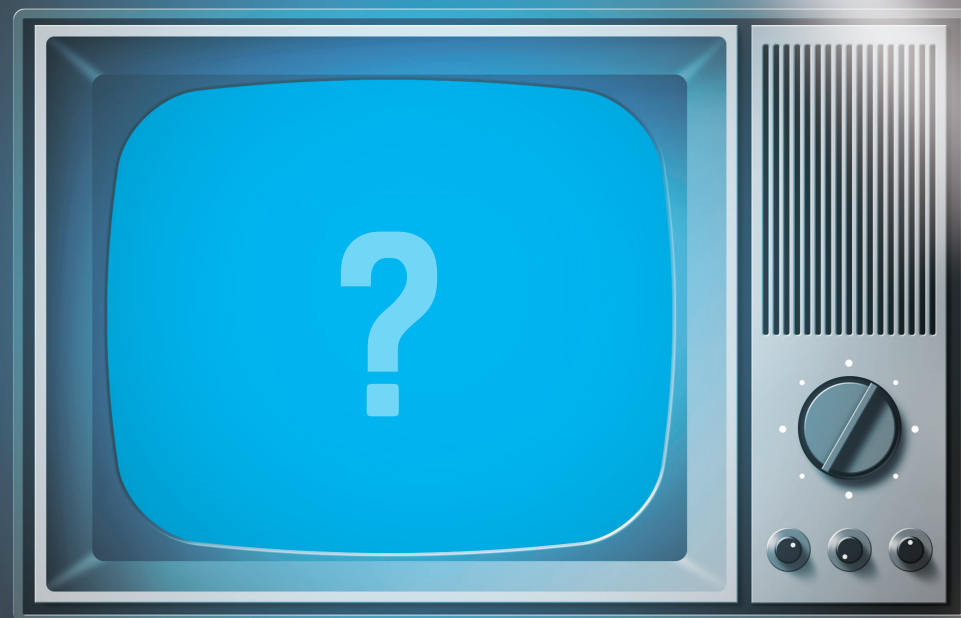
튀빙겐 네카강에서 슈토허칸(긴 장대로 강바닥을 밀어 이동하는 전통 나무배)을 타며 보았던 풍경. 튀빙겐에서 가장 유명한 뷰포인트라고 한다.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잔잔한 초록빛 강물, 돌담에 앉은 대학생들의 여유가 아름답다.



효리

슈투트가르트의 슈타이프 인형 가게에서 친구가 "너랑 닮았다"며 보여준 인형.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여행 마지막 날이라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데려왔다. 미디어 루키즈 여행을 오래 기억하게 해 줄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다.

심화 주제: 더 깊이



대체됨과 뒤처짐의 굴레: AI Act로 보는 AI 시대의 생존 조건

주가윤(미디어 23)

AI 시대에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대체됨'이다. 사무 업무 분야에서도 이미 실직 사례가 여럿 들려오고, 채용 면접에서는 '왜 AI가 아닌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라'는 문항이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던 '창작자' 역할조차 AI가 해내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챌린지로 유행했던 M.Sasuke의 'GG EZ'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음악으로, 보컬과 작곡 등에 AI가 개입했으며, AI 음악 유튜브 채널 '조선합합'의 곡도 멜론 일간 차트 50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례들은 언뜻 보기엔 '인간은 AI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우리를 겁주는 것 같다. 너무나도 빨리 시작된 AI에 의한 실직 현상, 불가침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창작의 기술까지 진출한 AI, AI 창작물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란 예측과 달리 그것에 열광하는 대중까지. 거대한 흐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결국 AI를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적재적소에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일, AI를 작동시키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일 등 AI가 있는 모든 영역에는 인간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이 필요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가까우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인간'이라 함은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다.

결국 AI는 'AI 활용 능력'이라는 또 다른 경쟁력의 시대를 연 셈이다. AI에 의한 대체의 축은 '인간이나, AI냐'가 아닌,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나, 그렇지 않은 인간이나'가 된다. 우리는 '대체됨'이 아니라 '뒤처짐'의 시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단순한 업무 능력보다는 해당 업무에 알맞은 방식으로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유능함

의 판단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 AI는 단순히 도구로만 치부하기에는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혁신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여전히 인간의 사고력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뒤처짐의 논리는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단위로 넓혀 본다면 AI 규제 정책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AI, 전 세계가 AI 열풍에 올라타 저마다의 활용 사례를 뽐내는 시대에 AI를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마당에, AI 활용에 제한을 둔다면 얼마나 큰 손해일지 감히 예상할 수 없다. 루키즈 연수 일정 중 만났던 BeReal의 정재무 iOS 엔지니어님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럽은 EU의 AI Act를 기반으로 타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능의 도입이 늦어지고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 현장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브뤼셀에서 만난 EC 관계자들은 유럽 연합의 AI Act를 AI '세계 최초의 AI에 대한 규제'로 자랑스럽





게 설명했다. 규제가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감속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경쟁력보다 '위험성'을 중심으로 AI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빠른 발전보다는 AI가 인간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데에 집중하는 AI Act는 단순히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AI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결국 앞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AI 활용을 크게 규제하지 않는 미국과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딥페이크, AI의 편향된 학습, 무단 학습과 생성물의 저작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AI에 대한 맹신 혹은 불신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AI 개발과 활용에 무제한 자유를 주는 것이 국가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위험 관리 측면의 적절한 규제책 없이는 더 큰 문제를 낳는 위험 기술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 개인의 범주로 좁혀 본다면, '뒤처짐'의 공포에 쫓겨 단순히 활용력을 기르기 위해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독이 되기 십상이다. AI에게 모든 생각과 실행

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AI 활용에 능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성된 결과물에서는 '나'는 지워지고 AI만 남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에게 사고와 실행을 통째로 맡기는 순간, 우리는 AI에 '대체된다'는 것이다. AI에 인간 사고의 산물이 투입되지 않고,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대체됨'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규제는 물론, 어떤 업무까지 AI를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해 둔다면 뒤처짐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대체됨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다. EU의 AI Act가 속도보다 안전을 택함으로써 '올바른 활용'의 기반을 다지려 했듯, 개인 역시 능숙함만을 좇기보다는 AI에게 맡길 영역과 맡기지 않을 영역을 스스로 구분 지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이란 AI를 얼마나 많이, 빠르게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아닌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야말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성장을 멈춰도 괜찮은 사회: 성장을 둘러싼 해외 기업과 한국의 업무 환경 차이

박선영(미디어 22)

유일연 로레알 CFO님이 들려주신 인상 깊었던 일화 중 하나는, 그가 한 명의 유능한 부하 직원을 승진시키려 했을 때 오히려 그 직원으로부터 "왜 당신이 내 삶을 결정하려 하느냐"는 반문을 들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반문은 프랑스인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 직원에겐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승진이 곧 타인의 인정이자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이 승진 제안을 거부한 행위는 성장을 대하는 한국과 프랑스, 두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 기업 문화는 어떨까. 유 CFO님이 있는 로레알 파리에서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자유가 크다. 유 CFO님은 로레알 파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업무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기가 맡은 일의 범위를 스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성장이 정해진 트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지점에서 얼마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여준다. 프랑스 기업 문화에서 일은 삶의 여러 영역 중 하나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다가 원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능력이 있는 만큼 대우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한국의 조직 문화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모든 구성원이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기대받고, 스스로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흔한 편이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성장', '가족', '나 자신'이라

는 세 축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성장'이라는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일하며 위로 나아간다. 1년 차 BeReal iOS 엔지니어 정재무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문화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정재무 엔지니어는 BeReal도 파리에 있지만,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기업보다는 오히려 미국 스타트업에 가까운 문화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아 자신의 분야인 iOS 엔지니어링은 물론 기획과 마케팅까지 폭넓게 관여하게 되며, 프랑스인 직원들은 이런 속도를 버티내기 힘들어할 정도라고 전했다. 결국, 자신이 속한 회사의 업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급한 성장 속도를 택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채택해 자신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주체가 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프랑스 사회 전반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 위에서, 성장에 대한 태도 역시 개인의 선택지로 남겨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서울에서 우리는 때로 바쁘게 살아가는 주변을 보며 "나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 "내가 뒤처지고 있진 않을까 우려한다. 그래서 때론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큰 부담을 스스로 짊어진다. 미디어 루키즈를 통해 한국과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하는 기업들을 방문한 덕분에, 자신의 성장 속도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각자의 방식을 접할 수 있었다. 미디어 루키즈들 또한 때로 다른 이가 경적을 울려 우리를 재촉하거나 갑작스레 끼어들더라도 자신만의 속도로 굳건히 운전대를 잡고 여정을 이어 나갈 것이다.

AI 시대의 팩트체크: 득인가, 실인가?

김서연(미디어 23)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뉴스와 SNS를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될까? 또 그 정보 중 얼마만큼을 진실한 정보라고 판별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의 양과 질이 모두 급격히 증가했고,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체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언론사와 기관들은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시간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가 팩트체크 현장에 미친 영향을 영국과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I 조작 정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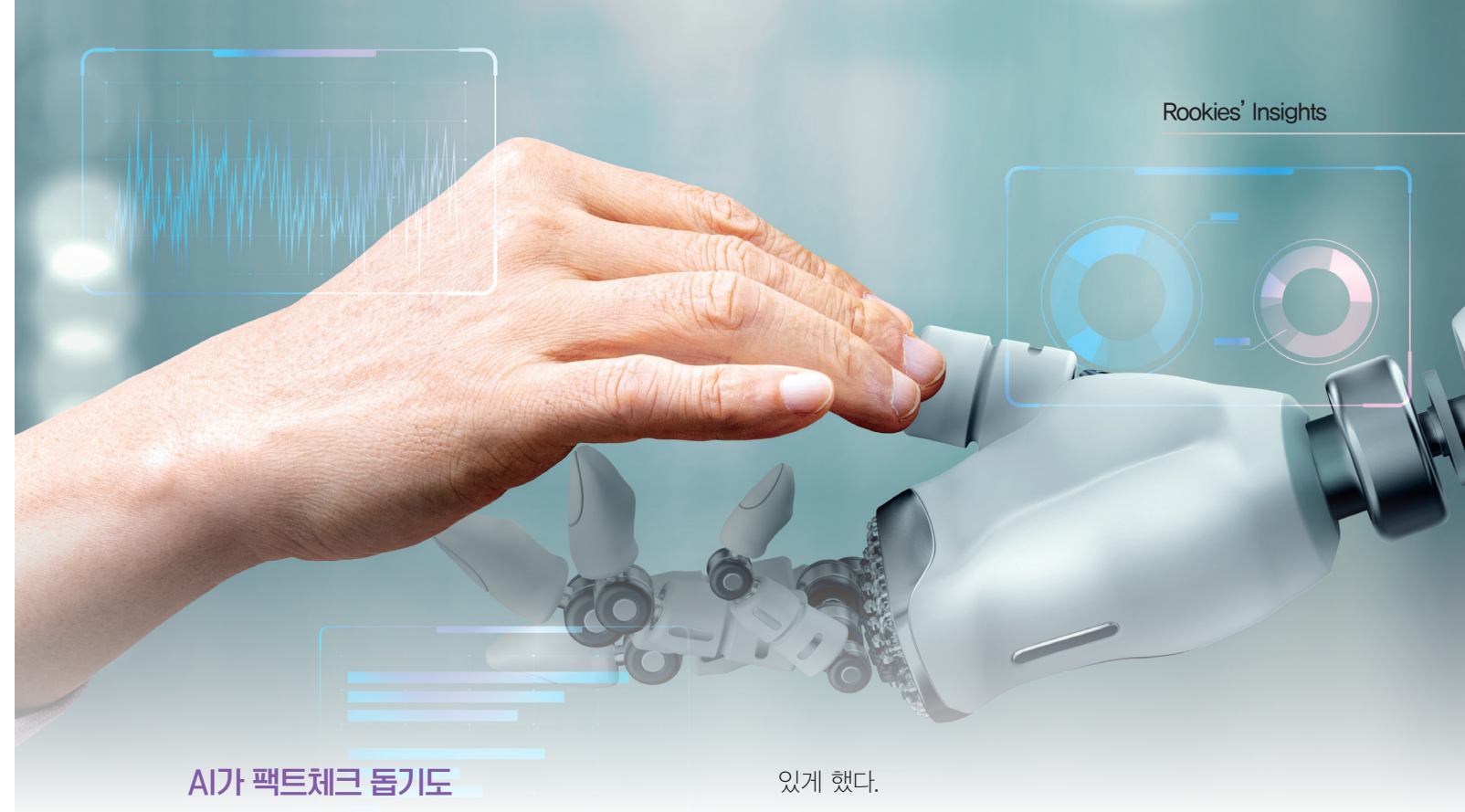
영국 공영방송 BBC는 'BBC Verify'를 운영하며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AI 및 편집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대중들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2023년 BBC Verify를 출범하게 되었다.

BBC Verify 팀은 위성영상, 공개 출처 정보(Open-Source Intelligence · OSINT), 데이터 분석,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주목할 점은 BBC Verify 팀의 팩트체크가 단순히 정보의 진실 및 허위 여부만 판별하는 것이 아닌 팩트체크의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자들의 취재와 검증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저널리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BBC의 움직임이었다.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소셜 미디어상에서 허위 영상이 다량 공유되었다. 과거의 다른 사건의 영상이나 AI 기술을 활용해 편집된 조작 영상 등 실제 공습 장면과 무관한 자극적인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BBC Verify 팀은 해당 영상들의 팩트체크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영상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BBC Verify 팀은 정확한 위치 좌표를 찍어서 촬영 위치를 확인하고, 위성 사진과 건물 구조가 일치하는지, 그림자의 방향이 옳게 되어 있는지, 다른 영상들과 일치하는지 등 세세하게 정보들을 확인했다. 또한 파키스탄이 격추한 전투기 잔해라 주장하는 사진들에 대해 기체에 적힌 글자와 기종, 주변 건물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BBC Verify는 AI 시대에서 달라진 팩트체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과거에는 정보원의 확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과 이미지가 넘쳐나는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방식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BBC Verify는 AI 시대에 필요한 팩트체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I가 팩트체크 돕기도

그렇다면 과연 AI는 팩트체크 및 저널리즘 신뢰도에 악영향만을 미칠까? 모두가 예상했듯 그렇지 않다. AI는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팩트체크의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스페인의 팩트체크 및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기관 'Newtral'은 AI 시스템을 개발하여 팩트체크의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AFP 등 타 기관에서도 AI를 팩트체크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AI 프로그램 'ClaimHunter'는 사실 여부를 판독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팩트체크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laimHunter는 SNS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공인의 SNS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 게시글 역시 중요한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게시물과 연설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가 이를 대신해 팩트체크가 필요한 게시글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ClaimHunter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팩트체크가 필요한 대상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0%~80% 단축되었다. 이러한 절약은 기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사실 판단과 정정 내용 작성은 기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AI는 기사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걸러내는 보조 도구의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 덕분에 기자들은 더욱 깊이 있는 취재와 검증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지만, AI의 도움으로 팩트체크의 속도와 범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AI와 현명한 공생

지금까지 살펴본 BBC Verify와 ClaimHunter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AI는 팩트체크를 넘어서 언론의 신뢰도에 마냥 득이 되거나 실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AI는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검증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무조건 배제하거나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태도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언론인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AI 시대에 언론이 신뢰를 지켜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 우리의 다음 페이지 •

Interview - Rookies Off the Record

Q 탐방 기간 먹었던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는?



다연: 파리 숙소 앞 베이커리에서 매일 아침 사먹었던 **크루아상**이요 ㅠㅠ 전 정말 빵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인데요.. 프랑스 **크루아상** “차원이 달라” 그리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먹었던 **케밥**! 독일식 **케밥**이 유명하다고 하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람 얼굴보다 큰 **케밥**이 나왔을 때 당황하긴 했지만~ 돌아가면 또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최고

성준: 르몽드 방문후에 먹었던 **피스타치오 피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스타치오는 두쫂쿠의 영향인지(..) 약간 디저트 재료로 인식되는데 그걸 피자에 올린 게 생소했지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 하긴 근데 피스타치오 자체는 그냥 견과류일 뿐이니까..



수현: **개구리 뒷다리 구이** -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평생 먹어봤던 고기보다 맛있었어요 ㄷㄷ

가윤: **납작복숭아**... 브뤼셀 다녀온 날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마트에 들어서 사먹은 건데 정말 너무나 맛있었어요 전수현 부장님이 사주셔서 더 맛있었습니다 ^^



Q 탐방 기간 중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선영: 브뤼셀에서 다시 프랑스로 오는 기차를 박아란 교수님과 민혁 조교님과 놓쳐서 맨붕왔던 경험.. 갑자기 민혁 조교님이 단체로 티켓 검사한다고 나오래서 박아란 교수님과 기차 밖으로 나왔는데 기차가 문 닫고 출발했어요 ㅋㅋ 인생에서 제일 황당한 경험이라서 전 병쳐서 가만히 있었는데, 민혁 조교님과 아란 교수님은 열렬히 불친절한 역무원에게 저항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다음 기차를 달려가서 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때론 살면서 내가 겪은 일에 화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혁 조교님이 역무원들에게 ‘빠트롱 나와’ 기세로 화내시니까 마침내 다음 기차에서도 우리를 타게 해줬기 때문에..

수현: 아무래도 브뤼셀에서 교수님과 조교님, 선영이가 버려질 때가.. 깜짝 놀랐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겼습니다..

안서연: 효리와 함께 호텔 스파를 즐기고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먹고, 라면 냄새를 좀 빼려고 창문을 연 그 순간... 1초 만에 깔따구 수백마리가 떼를 지어 방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야행성이라 불이 환한 방으로 순식간에 들어온 것! 찾아보니 해로운 벌레는 아니고 금방 죽는대서 그냥 적당히 두자고 했지만, 효리는 이 벌레들을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다며 슬리퍼로 모든 벌레를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새까맣질 때까지 벌레를 잡는 효리의 모습은 최고였습니다.

가윤: 파리 지하철은 나갈 때 쇠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임승차 통로가 되는 줄 모르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줬다가 열떨결에 무임승차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으면 황당하고 말았을 텐데, “메르씨 마담”이라는 말까지 들어 버려서 공범이 되어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Q 탐방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김서연: 파리에서의 첫날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했고, 첫 일정부터 유네스코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던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서로 지친 표정을 보며 웃었던 것도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첫날부터 같이 힘들었던 덕분에(?) 다들 빠르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정인: 배움도 많이 얻었고, 함께 하는 루키즈들과의 시간도 즐거웠지만 한 3-4일차 쯤이 되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으면서 돌아다니고, 숙소 돌아가서 바로 자면 그 다음 날 또 일찍 나가봐야 하니 잠을 자도 완전히 충전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혹시 지원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평소에 체력단련을 좀 해놓으시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엄마 밥도 먹고 싶었어요. 특히 찌개..! 맵고 칼칼한 한식이 너무 생각났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다연: 튀빙겐 대학교 학교 탐방을 한 날! 학교가 얼마나 큰지 캠퍼스 탐방을 하루종일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학교 앞 강에서 보트를 탈 때쯤에는 다들 눈이 반쯤 감졌던 것 같아요. 그치만 예쁜 풍경 덕에 힐링도 많이 했고, 밤에 독일 학생들과 맥주 파티를 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Q 루키즈를 가기 전과 다녀온 지금, 자신이 느끼게 된 변화가 있다면?

효리: 루키즈 참여하기 전에는 미디어 전공과 함께 어떤 이중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UNESCO와 European Commission 같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국제관계학이 저에게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키즈는 제 진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준영: 일단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제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서연: 루키즈를 가기 전에는 도전을 즐기기보다는 익숙함 속으로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키즈를 다녀온 후 도전의 두려움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배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넓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10박 12일의 여정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선영 평생내맘에

안서연 웃음이 가득!

준영 여름이었다...

효리 평생추억♡

김서연 소중한 추억

성준 인생에한번

정인 이결왜안해 (장난이고요 사실 진심입니다) (한)여름밤의꿈

수현 웃고떠들기

다연 달려라루키

가윤 다시보내줘

Special Thank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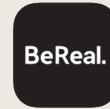
AJ 네트워크 문덕영 부회장님



UNESCO (Alton Grizzle Programme Specialist)

L'ORÉAL

L'Oréal Seine 62 (유일연 CFO)



BeReal(정재무 엔지니어)



EC(Ruben, Imogen Policy officer)

Le Monde

Le Monde(Louis Dreyfus President)



AFP(Jerome Martin Director)



RSF(Pierre Haski President)

STATION F

Station F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C 양지애 소장)



튀빙겐대학교 미디어연구소(Guido Zurstiege Professor)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답사(이수연 Professor)

CZS Institute(Stefan Thomas Professor)